



# 교회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

The Recipe for Church Planting

session 1

## I. 교회 개척

### 1. 이 시대의 교회 개척

- 1) 교회가 더 필요할까? ..... 6
- 2) 비전과 전략 - 교회론과 목회 철학 ..... 7

### 2. 교회개척 육하원칙

- 1) Who, 누가 개척할까? ..... 9
- 2) When, 언제 개척할까? ..... 11
- 3) Where, 어디서 개척할까?..... 13
- 4) What, 무엇을 해야할까? ..... 15
- 5) How, 어떻게 해야할까?..... 17
- 6) Why, 왜 개척해야할까?..... 18

## II. 개척 사례

### 1. 선교-전도 중심 교회

- 1) 아산 나들목은혜교회(최재훈 목사)..... 21
- 2) 안산 안산나눔교회(신현희 목사) ..... 24

### 2. 사역 중심 교회(목회프로그램)

- 1) 서울 승리교회(박영진 목사)..... 28
- 2) 고양 세길교회(김기승 목사)..... 32
- 3) 서울 행복이가득한교회(박준기 목사) ..... 36

3. 어린이 청소년 교회	
수원 주찬양교회(조은파 목사) .....	42
4. 농어촌 교회	
태백 문곡교회(고길우 목사) .....	46
5. 복지 중심 교회	
안산 푸른숲교회(윤명진 목사) .....	51
6. 문화 중심 교회	
천안 오병이어교회(장동근 목사) .....	59
7. 청년 교회	
서울 패스커뮤니티교회(지묘정 목사) .....	65

### Ⅲ. 개척 후 지원 가능한 정책

1. 감리교회 미자립교회 현황 .....	73
2. 연회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	75
3. 교회, 단체의 미자립교회 지원 사례 .....	80

### Ⅳ. 나가는 말

미자립교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89
-------------------------	----

오일영 목사  
선교국 총무



전국의 목회자와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감리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목회자들이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목회에 정진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며, 2020년 한 해도 사역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선교국에서는 감리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비전교회(미자립교회)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호남선교연회를 중심으로 한 ‘재개척학교’ 실시, ‘신바람 목회 세미나’, ‘전도운동을 위한 전도지와 물품 제공’ 등, 비전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고무할 점은 2019년도 감리교회 통계자료를 정리하면서 비전교회의 비율이 2018년도 47%에서 2019년도 45%로 비율이 내려간 사실입니다. 감리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성장의 담보를 견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리회의 미자립 비율은 오히려 좋아진 것입니다. 이는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기도와 열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선교국의 미자립/교회개척 정책위원회에서는 교회 개척 후 5년 내에 자립교회로 성장한 교회를 전국적으로 조사하여, 이번에 ‘교회개척과 성장을 돕는 개척 레시피’라는 제목 하에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척 후 자립으로 성장한 교회들의 실제적인 개척과 성장의 노하우를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여, 개척했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많은 비전교회에 성장을 위한 좋은 사례집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교인 수와 결산이 증가해서 미자립을 벗어나는 표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작지만 건강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의 성장 모범 사례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문제는 비전교회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 전체의 과제요 도전할 문제입니다.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자료집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미자립교회/교회개척 정책위원들과 조사하고 집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목사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I. 교회 개혁

## 1. 이 시대의 교회 개혁

### 1) 교회가 더 필요할까?

교회의 숫자가 건물마다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는 자영업 업종별 통계가 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고, 그 교회를 향한 시선 역시 부정적인 현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유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개혁은 여전히 지속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선교방법이다.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는 다양한 필요들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교회는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새로운 교회를 개혁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회가 마주한 환경이 점점 적대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꾸준히 세워지고 또 세워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를 위해서 먼저 질문해봐야 할 것은, '왜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교회 개혁의 동기가 시작되어야 한다. 교회 개혁의 동기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 중심된 동기가 있어야 한다.

## 2) 개척교회의 비전과 전략 - 교회론과 목회철학

‘무계획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교회 개척은 준비된 계획안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인지 막으시는 상황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획 수립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목회자에게 주신 선행된 환경(장점, 단점, 달란트)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를 향한 비전이다.

교회는 비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먼저 지역 환경을 분석해야 한다. 지역의 인구와 연령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세워져 있는 주변 교회들을 분석해서 지역의 필요를 찾아낸 후, 목회자가 가진 환경과의 교집합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즉 비전과 목회 철학을 세워야 한다.

가치관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지듯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회의 색깔과 교인의 구성이 정해진다. 이를테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가치를 두게 되면, 교회의 색깔이 젊고 역동적이 되고, 교인의 구성도 비교적 젊은 층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곧 교회의 모습이 된다. 따라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면서 정해진 가치에 충실한, 명확하고 선명한 핵심가치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한 비전과 핵심가치가 정해지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없다. 단순화의 원리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못하는 일보다 먼저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과 목회자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서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략에는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이 있으나, 교회 개척과정에는 단기전략을 세우고 또한 수시로 평가하는 일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교회와

목회를 특성화해 나가야 한다. <Ⅱ. 개척사례>에서 소개하고 있는 7가지 개척 유형별 사례를 참조하라.

교회를 개척 할 때,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 핵심그룹을 만드는 일이다. 핵심그룹을 세우느냐 못세우느냐가 곧 교회 개척의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분명한 비전과 명확한 핵심가치가 중요하며, 그것이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꾸준히 나뉘지고 공유될 때, 비로서 이 가치에 동조한 핵심 그룹이 만들어 진다. 먼저 핵심 그룹, 그리고 그전에 핵심 가치를 세우라.

## 2. 교회 개척의 육하원칙

### 1) Who, 누가 개척할까?

#### ① 객관적 기준: 과정, 자격, 필수 요건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개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을 감리회가 규정한 교역자 또는 개체교회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로 제한하고 있다. 입교인이 된지 5년이 지난 25세 이상의 신앙인으로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졸업, 수료하고 장정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를 말한다. 혼자 개척 할 수 없다. 교역자 개인 신상 외, 필수 요건들도 뒤따른다. 개체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사람과 장소 요건은 장정이 안내하고 있다(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1절 개체교회 제5조 개체교회의 설립). 최소한 감리교회에서 교회 설립은 그것을 원하는 한 사람 교역자(전도사나 목사)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12명의 입교인과 최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갖추고 있어야한다.

#### ② 부르심

교리와 장정에 교회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전도사, 목사의 자격에 대해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

“입교인이 된 후 5년 이상 경과되고 연령이 25세 이상으로 신앙이 돈독하고 전도할 능력과 열심이 있는 이”

신앙이 돈독하다(두텁고 성실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는 대단히 주관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믿으며,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동행, 내주,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주어진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

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한다.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며 복음을 전할 사명을 품은 사람이 교회개척 책임자라는 말이다.

### ③ 비전과 전략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무작정 시작한 사람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해도 자신의 비전과 전략에 따라 행동한다. 다만 슬한 시행착오와 실패를 수반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은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시작해야하나? 소명(부르심)이나 그분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라는 말 또한 저마다 경험에 따라 달리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질문을 얼버무리고 지나갈 수는 없다.

- 교회란 무엇인가?
- 목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추구하는 교회론과 목회철학이 여실히 드러난다. 없다면 개척을 포기하거나 다시 생각해야한다. 위 질문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동기, 신학적 성찰과,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사람은 교회 설립을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 ④ 어떤 교회를 세우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과거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보았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행태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을까? 큰 계획 없이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갈 때도 최소한의 생각과 준비가 필요하다. 낯선 곳에서 한 달을 산다면 어떻게? 하물며 일생을 두고 감당해야할 목회라면 계획이 필수적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목회 여정을 떠나는 이에게 계획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

로 포장할 수는 없다.

감리회에서 새로운 지역 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세운 비전과 전략을 준비한 사람이다. 시대상황을 막론하고 준비된 개척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된다.

## 2) When, 언제 개척할까?

### ① 좋은 개척 시기는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고 교회다. 목회자의 부르심도 우리가 때를 정해두고 받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보내심의 때를 우리가 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 사명감 가지고 하는게 개척이라고... 농담같이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런 고백 섞인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다.

언제 개척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연중 개척 시기를 묻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척자의 인생 시간표에서 어느 시점에서 개척할 것이냐를 묻고 있다.

‘모르면서 가는 것이 목회다’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뭇모르고 엉거주춤 따라나섰다가 지금까지 왔다’는 말도 솔직한 회고이고, 개척 현실을 담고 있는 말이지만 지금 개척하는 이들에게 이런 대답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

### ② 10월에 개척하라

교회개척 언제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하는지도 막막한 이들은 궁금할 것이다. 굳이 데이터 검색을 할 것도 없이 청첩장이 답지하는 시절을 생각해보면 결혼은 4-5월과 10-11월에 많이 몰려있다.

1년 주기의 목회계획이나 교회력으로 볼 때 10월은 한 해 목회를 결산하고 다가올 해를 준비하는 시기다. 교회달력을 이 때 맞추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전

후로 곳곳에서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숙고의 시간에 돌입하는 것이다. 11월이 되면 12월에 있을 당회 전에 교회의 예결산안이 확정되는 시기다. 다음 해에 어떤 교회들을 선교 동역자로 지정하여 협력 해 나갈지 확정하는 것도 이 때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제 교회를 개척하든 상관없지만 앞서 세워진 교회의 공식 후원을 기대한다면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사실을 찬 바람 불기 전에 지방과 연회에 있는 교회들에 알릴 필요가 있다.

### ③ 10월에 개척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적어도 3-4개월 전, 6월 중에는 교회설립을 위한 기도와 계획에 들어가고, 7월 예배처소 지역, 교회개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들과 만남, 바쁜 여름을 피해 8월 말까지 연회, 지방 제출 서류와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9-10월쯤 설립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목회자 개인의 준비, 공동체와 공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 ④ 목사님? 전도사님? 혹은 나이까?

전도사 시절 천막에 십자가 하나 세우고, 빈손, 맨주먹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했던 전설적인 간증이 간혹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 은혜 외에 자랑 할 것이 없다.

결코 확일화 할 수 없지만, 지역교회를 개척하려는 이는 수련목회자 과정을 거치거나, 목사 안수를 받고 부교역자 생활을 짧게나마 경험한 이들이 개척에 나설 것을 권한다.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할 때, 창조적인 목회, 근본부터 다른 목회를 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목회 현실이라는 것을 직접 대면하여 부딪힐 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지

만 학교가 아닌 목회 일선에서 어떤 경험도 없이 무턱대고 실패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35-45세의 목회자가 교회개척에 나설 수 있는 적정 연령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20세에 시작하여 장기간 단절 없이 학부 대학원 전도사 개척 또는 수련목회자 과정을 지나온 보통의 경우를 생각한 것이다. 부르심의 때와 나이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부르심 이후 목회자로서의 품성을 갖추는 짧지 않은 연단과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연령을 떠나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며, 열심을 품고 자신을 드리는 이들에게 교회개척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다.

### 3) Where, 어디서 개척할까?

#### ① ‘목 좋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 있는 곳’

교회개척을 제품 판매나 영업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 좋은 이른바 목 좋은 곳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는 장소를 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구하고 기도해야한다. 개척 성패를 가늠하기 전에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해야한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유럽선교를 향한 꿈속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교회는 선점이나 무한 경쟁의 논리로 말할 수 없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그대로 반영된 신도시 개척을 지켜본 적 있나? 설령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 교회개척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다 해도 씁쓸함이 남는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과 야망은 시간이 지나 교회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야한다. 사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개척은 단순히 일정한 거리 반경 내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감당해야할 예배와 성도의 교제, 복음 전파와

선교, 교육과 제자 양육,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누가 갈꼬?’ 물으시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이 개척이다.

개척교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있는 곳이나 이미 예배처소가 있다가 떠난 곳, 실망과 실패가 있었던 곳이라도 개척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흔히 교회가 있다가 떠나간 곳은 목회가 안된다는 말이 있지만 어떤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곳에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입지조건과 건물은 변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상수다.

## ② 예배처소와 건물

예배 처소는 중요하다. 도시든 농촌이든 언제든 올 수 있는 예배, 기도처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한다. 크고 깨끗하게 예배처소를 마련해두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작지만 규모와 용도가 분명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목회자의 관심과 사랑이며, 여기에 교우들의 헌신과 정성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가난한 신혼부부가 아기자기하게 꾸민 보금자리를 생각해 보면 될 일이다.

개척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꼭 건물에만 갇혀있을 필요는 없다. 교회 건물이 작다 해서 품도 작아져서는 안 된다. 작은 예배당을 벗어나 품 넓은 목회를 하라.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처소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한계가 금방 드러난다. 마을을 품고 지역을 다니며 목회하다보면 온 땅이 목회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 성도가 된다.

## ③ 지금 서 있는 곳이 땅 끝

개척 할 수 있는 입지조건の特徴이나 딱 짚어 어디가 좋겠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디서 개척할까를 묻는다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땅 끝으로 가야한다. 땅 끝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서 있는 곳, 부르심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고 시작할 수 있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개척지는 가깝다.

#### 4) What, 무엇을 개척할까?

##### ① 교회개척

지역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거룩한 지상명령이며 동시에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부르심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져가는 과정이다. 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개척의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 ② 예배 개척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와 예배 순서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다. 처음 주보에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디자인하는 일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예배 순서를 그대로 차용할 수도 있지만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입례 기원, 찬송, 송영, 사도신경과 주기도, 회개와 용서, 봉헌과 말씀 선포, 성찬, 헌신과 결단 축도와 같은 예배의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해야한다. 교회개척은 또 다른 시공간 속에 예배를 개척하는 일이다. 개별연구나 대학원의 전공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신학교 개론수업에서 배웠던 예배학이 전부일 가능성이 짙다. 평생 예배를 드려왔다고는 하지만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가 예배를 개척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은 무척 심사숙고해야할 일이다.

##### ③ 개척 선교

교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증인됨과 전파다. 한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부터 해외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억해야한다.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선교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장구한 선교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선교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④ 교육 개혁

누군가 만든 교재를 사용해 가르쳐 본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새롭게 개혁한 교회와 목회 철학에 맞는 양육 과정은 필수적이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는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변화된 삶을 살며,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이가 개혁교회 담임목사, 담임전도사다. 이런 양육의 시작을 다른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교회 개혁은 교육의 시작이며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의 변화다.

#### ⑤ 교제와 봉사의 개혁

교제와 봉사는 막 개혁한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혁한 교회 이기에 더욱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복잡한 조직과 절차 없이 눈에 보이는 일부 터 뛰어들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기며 함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제와 봉사는 교회의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다. 개혁교회는 교제와 봉사의 최전선에 있다. 섬김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연약한 이를 돕고 세우는 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동하며 만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교제와 봉사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 ⑥ 삶의 모든 것을 개혁하라.

정해진 방식과 주어진 여건 안에서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 부교역자의 모습이라면 교회 개혁은 먼저는 목회자의 삶과 가정, 교회의 사역과 여건을 세워나가며 책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 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오르는 것과 고지 좌표를 정해놓고 새로운 길을 만들며 정상을 향해 가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달리 보면 흥미진진한 일이다.

## 5) How, 어떻게 개척할까?

언제 어디서 개척할 것인가를 결정했다면 본격적인 교회설립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 ① 최소 100일 전에는 준비하자

교회 설립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회 설립일을 개척 목회자가 정하여 추진할 수는 있지만 확정할 수 없다. 감리사와 지방실행부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기소개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예배처소에 관한 복안(신축 또는 전세 계약 예정), 교회 설립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감리사를 찾아가야 한다. 감리사는 교회 설립 청원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실행부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교회 설립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한 두 달 전에는 지방 실행부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설립허가와 함께 설립감사예배 일시가 결의 되는 대로 연회에 서류 보고를 하고 선교부 총무와 지방 서기를 거쳐 지방 소속 교회들에 공지하는 방식이다.

교회 개척 디데이(D-day) 100일을 가정하고 순차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D-100 어디서 개척할 것인지를 정한 뒤 해당 지역 감리사를 찾아가서 교회설립 목적과 의사를 전한다.
- ㉡ 지방실행부회의 전, 예배처소로 사용할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재단편 입절차를 마쳐야하고, 예배처소 임대의 경우는 감리사와 연명계약서를 작성한다.
- ㉢ D-70 지방실행부회의의 소집과 결정을 기다린다(최대 30일).
- ㉣ D-65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연회에 접수 완료한다.
- ㉤ D-60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내용 - 목회비전과 전략, 목회계획수립, 예배, 양육, 전도, 은사배치 등  
형식 - 예배처소 내·외부 공사, 후보, 봉사자, 교회설립 홍보, 초청, 개척

위한 재원마련

- ④ D-7 교회설립감사예배 전 개척에 참여한 입교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다.

② 교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 ① 교회설립 보고서(감리회 표준양식)

- ② 위치도

- ③ 평면도

- ④ 임대일 경우 - 전세계약서 사본

\* 감리사와 연명으로 계약하고, 전세 등기 및 전세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무상임대일 경우는 교회 사용 승낙서 또는 무상 임대 확인서 첨부

- ⑤ 지방 실행부 회의록 사본(설립 결의)

\*입교인이 12명 이상 되어야만 개척 설립 할 수 있음.

6) Why, 왜 개척할까?

- ① 처음, 그리고 다시 개척해야할 이유를 묻다.

부르심 없이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 이는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 할 질문이다. 동시에 모든 준비가 되었고 심지어 개척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점검해야할 물음이다. 발탁과 위탁,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

- ② 무엇을 위해 개척하는가?

교회 개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결혼식이 아닌 결혼 생활과 행복이 목적이 되듯, 교회 개척의 목적은 복음전파와 선포, 가르치고 고치는 사건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통치)가 유일한 목적이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한 사람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계속해서 구

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개척의 원동력이다.

부흥 성장이 목표인가? 오랫동안 그래왔다. 부흥 성장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의 열망이었고, 성장 세미나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성장시키거나, 큰 규모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 강사로 나서서 목회 성장 비법들을 전수했다. 전국의 개척교회 목사들이 몰려가서 그들의 강의를 들었다. 과연 성장했나? 그래서 부흥했나? 부흥을 사모하고 성장이 잇따른다면 기쁘겠지만, 우리의 속을 들끓게 만드는 욕망의 연속선상에서 교회개척을 도모하고 있다면 멈추는 것이 낫겠다. 큰 교회 한 번 해볼 마음이라면 지금 그만둘 것을 간곡히 권한다.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준비하는 이들에게 개척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 어차피 모르면서 가는 길이니 모른다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개척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기도하며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을 빌며 이정표와 안내가 될 만한 앞선 이들을 소개한다.

## II. 개척 사례



- |                         |  |
|-------------------------|--|
| 1. 선교-전도 중심 교회          | 1) 아산 나들목은혜교회(최재훈 목사)<br>2) 안산 안산나눔교회(신현희 목사)                      |
| 2. 사역 중심 교회<br>(목회프로그램) | 1) 서울 승리교회(박영진 목사)<br>2) 고양 세길교회(김기승 목사)<br>3) 서울 행복이가득한교회(박준기 목사) |
| 3. 어린이 청소년 교회           | 수원 주찬양교회(조은파 목사)   |
| 4. 농어촌 교회               | 태백 문곡교회(고길우 목사)  |
| 5. 복지 중심 교회             | 안산 푸른숲교회(윤명진 목사)   |
| 6. 문화 중심 교회             | 천안 오병이어교회(장동근 목사)  |
| 7. 청년 교회                | 서울 패스커뮤니티교회(지모정 목사)  |

---

각 교회의 개척 사례 소개는 다음 개요를 따라 편집하였습니다.

- ① 교회 기본 정보
- ② 개척동기와 과정
- ③ 비전과 전략
- ④ 교회의 사역
- ⑤ 초기 전도/핵심 멤버 세우기
- ⑥ 맺음

## 1. 선교-전도 중심 교회

### 1) 나들목은혜교회

최재훈 목사

#### 나들목은혜교회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구도심 상가 2층에 자리한 나들목은혜교회에 2000년 4월, 세 번째 담임자로 최재훈 목사가 부임한다. 당시 출석교인 10명에 1천5백만원 결산이었던 교회는, 천천히 그리고 균형 있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한 결과로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 어린이 포함 90명 정도가 모여, 재정은 금년 기준으로 특별예산포함 약 1억 중반이다.

#### 개척동기와 과정

나들목은혜교회는 최재훈 목사의 첫 목회지이자 신혼집이었다. 따로 화장실이 없어 아기를 싱크대에서 씻겨야 하는 환경에서도,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목숨 걸고 목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전도하고 행사도 했지만 작은 상가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어른들은 없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다. 어른들에 비해 전도가 훨씬 수월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모여면서, 어른들도 차츰 모이기 시작했다. 2003년에 목사안수를 받을 때까지 승합차 구입, 예배당 리모델링, 그리고 사택 구입을 마쳤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교인들의 성숙이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았고, 교인수의 성장도 일정 부분 답보 상태였다.

#### 비전과 전략 - 소그룹 제자훈련

2004년부터 현장의 필요에 따라 MBTI(성격유형검사)와 가정상담을 공부하였고, 교회에서 소그룹 제자훈련을 시작하였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제자훈련을 통해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했다. 그렇게 시작한 제자훈련의 효과는 속회를 통해 더욱 배가되기 시작한다. 제자훈련을 마

친 이들이 속회에 들어가자, 기도의 역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속회 모임에서 남들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이 나누어졌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비로서 '나'에게서 '우리'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이때 다른 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의 핵심그룹이 만들어졌다.

2011년 교회 근처에 조성된 도시개발지역의 땅을 구입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약 1,500세대 아파트 단지 앞에 교회를 건축했다. 건물을 세운 후에는 사람 세우는 일에 더욱 집중했다. 2013년 이르러서는 나들목은혜교회의 중심사역인 소그룹 사역의 본격적인 틀이 모두 갖춰진다. 바로 하나복 DNA 네트워크(<http://hanabokdna.org/>)를 통해서이다. 이곳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필요한 전도와 초기양육, 그리고 회심과 제자훈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만들었고, 성도들 개인의 삶과 가정에 균형 있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일 오전예배와 식사 후, 전체 교인들을 연령별 그룹으로 나누어 제자훈련을 하였다.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여름과 겨울 수련회로 진행했다. 교회 임원공천 내규에 제자훈련 코스를 임원 필수과정으로 확정했다. 소그룹모임과 일대일 제자훈련을 통해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섬기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면서,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그리고 찬양팀이 생겼다.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고, 봉사자들이 생겨났다.

## 건강한 교회 성장

나들목은혜교회는 ①찾는이 중심 ②균형 있는 성장 ③진실한 공동체 ④안팎의 변혁 ⑤소망하는 예배라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이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도록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두루 갖춘 교회들과 비교해서는, 인력도 재원도 부족하기에, 교회만의 차별화와 집중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성품 교육'이다. 교회학교 예배를 성품 예배로 드리면서, 주일 예배와 분반공부, 주중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해피타임 등을 통해 아이들

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쳤다. 본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가정들이, 이때부터 생겨났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지역 아이들을 초청하는, 키즈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각각의 체험부스를 만들고 다양한 간식을 나누며 지역에 교회를 알리는데, 꽤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4월 부활절을 전후하여 ‘찾는이 사역’(전도)을 시작한다. 모든 성도가 찾는이(전도대상자)를 1~3명씩 적어낸다. 그리고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는 일을 시작한다. 문자나 전화, 가끔은 그분들과 식사 교제를 하도록 광고하고 권면한다. 그리고 10월에 ‘찾는이 초청예배’를 시작으로 연속적인 초청예배에 그들을 초청한다.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예배까지 꾸준히 관계를 맺어 가면 언젠가는 분명 교회에 호기심이 생긴다. 그때 그분들을 교회로, 그리고 각 속회로 인도한다.

### 마치는 글

나들목은혜교회는 아직 젊은 교회다.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에 이르게 된 소그룹 제자훈련은, 점차 큰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교회이다.



## 2) 안산나눔교회

신현희 목사

### 첫 담임지

2010년 8월 15일 개척한 교회의 첫 목회자가 해외 이주하면서 안산남지방에서 목회하던 선배의 소개로 현재의 임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66)에 오게 되었다. 서울남연회 수표교교회에서 전임전도사와 수련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2011년 3월 20일 감리사님을 모시고 인사구역회를 안산나눔교회로 파송. 목사 안수 직전 달이었던 3월 27일 첫 예배를 드렸다. 31살 나이로 첫 단독목회를 시작했다.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37만원으로 1필지 단독상가 2층의 40평(132㎡) 임대 예배당이였다.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셋이서 드리기 시작한 예배 중간에 전에 함께 사역하던 교회를 이임한 전도사 네 사람이 달려와 주어 외롭지 않았던 첫 예배였다. 이후 해외 유학과 새로운 선교 사역을 시작하기 까지 함께 예배와 사역에 기쁘게 헌신해 주었던 전도사들의 밑거름 같은 헌신이있었다.

###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행 6:4)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계속했다. 365일 새벽기도와 매일 전도였다. 결코 비싸지 않은 월세 37만원도 버거웠던 그때, 하루에 만 원 조금 넘는 등록비를 내고 기도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느낌으로 혼자서도 새벽을 깨웠다. 123일 동안 혼자 기도하던 차에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한 여전도사님이 새벽기도회에 나왔다. 그 이후로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새벽에 목사 혼자 두지 않으셨다. 같은 시간과 장소, 매일 버스 정류장에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전도지를 들고 교회 홍보를 위해 나간다면 비참한 영업이겠지 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나선다면 영광스러운 전도자가 된다. 전도의 목적은 예배당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전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도 믿는 자와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장래에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비타민까지 두 개나 주는 전도자는 당당할 수밖에 없다. 전도

의 언어도 중요하다. “믿음이 참 좋은 길입니다.” “믿음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출근 시간, 미소와 함께 전하는 축복과 격려는 덤이다. 겨울에는 뜨거운 캔 커피와, 핫팩을 들고 ‘그리스도 사랑의 온기’를 전했다. 여름에는 시원한 식혜와 열린 물티슈를 들고 나섰다. 전도에 대한 고민은 뻘한 전도물품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전하게 만들었다. ‘복음 전도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틴 로이드 존스)’ 이기에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다는 사실을 적시한다면, 이렇다 할 결과와 열매가 없어도 이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 현실은 막연함과 싸움이였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도를 나갔다. 하지만 1년 6개월(2012년 8월)이 지나도록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은 몇 사람 있었을지언정 등록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함께 하던 고마운 후배들도 학업과 사역을 위해 떠날 수 밖에 없었던 그 때 즈음, 낙심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같은 한 가정이 있었다. 마침 출석할 교회를 찾던 권사님과 장성한 아들이었다. 그 후, 몇 주 사이에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이들 중에 마음을 열고 찾아온 이들도 있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2012년 11월 18일 추수 감사주일 낮 예배, 어린아이까지 모두 18명이 예배당에 앉아있었다. 건축의 기초와 골조가 중요한 것처럼 초창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이들을 분별하여 세우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오래전부터 들어온 개척교회의 원칙이 있었다. “개척교회는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붙잡는다.”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교회답게 세워져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공동체를 이루며, 피차 덕을 세우고,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헌신하는 태하심 받은 이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 있는 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고, 병원 심방이 사무치게 가고 싶던 그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 자립과 성장

2014년 “네 발로 일어서라(겔 2:1)”는 표어를 세우고 달려간 그 해, 교회는 선

교적·교육적 자립을 선포했다. 개척 5년차, 2016년 등록교인 51명에 한 해 결산이 9천만 원에 육박했다. 교역자를 포함해 12명의 직분자와 헌신적인 장년 성도들이 있어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었다. 365일 새벽기도와 전도를 계속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 일 년에 성경을 세 번 읽는 통독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사경회를 진행하고, 월초 전교우 새벽기도회, 청소년 청년을 위한 전도 집회와 말씀 사역에도 힘을 쏟았다. 지역에 독거 노인을 위한 반찬 봉사 and 안산대학교 학원사역으로 동분서주했다. 자녀도 셋이나 주셨고, 부흥하는 안산나눔교회는 순항을 계속하는 듯 했다.

### 목회자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

하지만 위기도 금새 찾아왔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며 정직하게 그 때를 돌이켜볼 때, 그것은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였다. 교만이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어느새 부흥과 성장의 주역이 나 자신이 되어있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를 자랑하는 것’은 자칫 혼동되기 쉬운 목회의 함정이다. 누구도 혼자 설 수 없었음을 잊었던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가 되어 후원하고 격려해주었던 교회들의 관심과 앞서간 목회자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잠시 망각하고 남다른 노력만 있었을 뿐이라고 착각 했었다. 2017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던 직분자 두 가정이 떠나가고, 기동처럼 섬기던 한 가정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셨던 기회를 허비해버렸던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내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 허둥대다가 결국 엎드려 기도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제2:5)는 강한 부르심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여기 있는지를 생각’하며 엎드려야 할 기도의 자리, 서있어야 할 전도의 자리를 더욱 철저히 붙들었다.

감사하게도 불행만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2014년부터 동역했던 김유미 목사와 담임목사를 염려하며 중보해준 고마운 성도들이 그루터기처럼 남아 있었다. 군

포지방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김명환 목사와 지난 8년간 지속해온 전도품앗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주님께서 들썩 짝지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목회를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도와 전도의 동역자는 교회개척의 매우 실질적인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것이다.

## 회복과 부흥

자립과 성장은 비전교회에 절실한 것이지만, 그것이 교회 사역과 전도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프게 깨닫는 시간을 통해 다시 일어난 작년 한해를 뒤로하고, 2019년을 새해자정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새해를 맞이했다. 힘차게 시작한 지금 안산나눔교회는 9명의 직분자를 세우고 21명의 장년 성도와 4명의 청년, 5명의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생명 전하는 안산나눔교회는 처음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꿈꾸며 다시 달려가고 있다.



## 2. 사역중심 교회 (목회프로그램)

### 1) 승리교회

박영진 목사

#### 승리교회는

승리교회(서울연회 강북지방 / 담임목사: 박영진)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승리교회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인 서울시 강북구의 면적은 23.60km<sup>2</sup>로서 서울시 면적 605.52km<sup>2</sup>의 3.9%에 해당하며, 인구는 약 32만명(19.1.1기준)이다.

승리교회의 시작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25평 규모의 작은 예배실에서 1999년 시작되었으며, 박영진 목사는 2대 담임자로 부임하며 재개척의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하였다. 2010년 12명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 승리교회는 2012년 출석교인 30명의 교회가 되어, 2013년 서울연회로부터 ‘자랑스런 교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9년 현재 입교인 100명의 교회로 은혜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며, 재정은 2018년 기준, 특별예산포함 약 2억원이다.

#### 개척동기와 과정

개척 초기 성도현황은 기존 교회에서 잔류하게 된 성도 12명으로, 당시 성도들의 현황은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된 교회였다. 기존에 있던 교회에 부임하는 형식인지라 창립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았으며, 교회의 예배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40년된 상가에 임대해 있는 교회의 환경이라는 것은 교회안에 주방시설이 없고,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교회의 환경을 보면서 ‘이러한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리모델링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고, 2010년 6월 6일 리모델링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해 승리교회는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고, 이 변화를 통해 기도하고 도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공감의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승리교회는 사역에 집중했다.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를 통해이웃을 교회

로 초대하는 기회를 확보했고, 성도들에게는 사역을 통해 작은 성취감이 연속되었다.

승리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외부 재정 지원은 없었다. 특이할만한 개인후원자도 없었다. 이 부분이 승리교회의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승리교회는 이른바 ‘야성’이 있는 교회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올인했고, 지금도 올인하고 있는 교회이다.

리모델링후 1년여를 보내면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했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이 필요한 시점에 과감한 도전으로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 집기류를 포함하여 1억여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새롭게 이전한 교회에서 제2의 부흥을 맞게 되었다.

## 비전과 전략

승리교회의 영구적인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인지?’를 늘 물으며 목회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때는 과감하게 진행한다.

개척하여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다’라기 보다는 목회하며 여기까지 오다보니 승리교회의 목회 색깔은 ‘감동목회’와 ‘관계전도’로 정리된다. 개척하며 생각했던 마음 중 하나는, ‘이 작은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다!’였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하다. 그렇게 감사한 성도님들에게 작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간섭)과 승리교회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교회라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 어려울 것이기에, 작은 교회이고, 교회가 작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어린이용 물티슈, 기저귀 등을 비치하거나 돌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등 성도들의 기념일을 교회에서 준비하여 함께 축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교회는 거창하게 말하면 입소문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었다. ‘우리교회는 돌잔치를 해줘’, ‘우리교회는 칠순잔치를 해줘’ 등등.. 그러한

이야기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했고, 그래서 사역(콘서트)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를 방문하게 했으며,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관계전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물론 관계전도는 높은 정착률로 연결되었다.

다른교회가 하는 사역이 아닌 우리교회에 맞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사역을 늘 연구하게 되고, 그러한 사역으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

승리교회는 '양육'에 집중합니다. 초창기부터 인원이 없어 양육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뒤집어, 일대일 양육부터, 성도들의 시간에 맞추어 맞춤양육을 시작했다. 지금도 승리교회는 양육을 원할 경우 본인이 양육팀을 모집해서 시간들을 조율해 담임목사에게 신청하게 되어있고, 그렇게 모집된 양육팀을 최선을 다해 양육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은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사역의 자리로 이어가 이들이 교회의 핵심멤버로 세워지고 있다.

### 공감 & 감동 목회

성도들의 삶을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산다'는 마음으로 삶에 깊숙이 들어가 사역하고 있다. 작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승리교회는 '건강한 작은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목회라고 생각한다. 승리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인 치유를 위해 '감동'을 연구하고, 그것을 사역화하여 성도들과 나누고 있다.

### 3대 핵심 사역

꽃보다 승리 시리즈 / 전교인 여행 프로젝트 (2년에 1회)

영성여행 / 담임목사와 떠나는 영성여행으로 기관별, 선교회별로 실시

첫토새 / 온가족이 다함께 드리는 첫째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 마치는 글

현장에 답이 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교회에 맞는 사역이 떠오른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현장에 있는 나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한다.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라! 지속적인 사역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신다. 사역이 없으면 목사처럼 한가한 사람도 없는데, 사역하는 목사만큼 바쁜 사람도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바쁜 목사가 되라. 다음 주일이 기대되는 교회를 만들라! 늘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의 교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격려의 소리가 있는 교회는 힘이 넘친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쳐 돌아온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줄 때 또 다시 다음 주일이 기대되는 교회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잘 준비하라! 어설픈게 하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잘 준비된 예배는 훨씬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만약 이곳이 카페였다면, 매장이었다면 이렇게 운영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는 것이 유익하다.



## 2) 세길교회(구 와이교회)

김승기 목사

김기승목사는 수련전도사 시절 최윤식박사의 ‘한국교회 미래지도’ 책을 읽으며 앞으로 한국 교회의 마지막 골든 타임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개척에 대한 꿈을 꾸었다. 2015년 12월 김기승목사는 교회를 개척했다. 일산 중산동의 상가 건물 7층에 18평과 12평의 두 공간을 얻어 월세로 시작하였다. 18평은 예배 공간, 12평은 주중에는 사택으로 주일에는 어린이 예배실 및 애찬실로 사용하였다. 사택은 간이벽을 세워 (화장실이 없는) 샤워실과 싱크대만 설치하였다. 12월 2일 아내, 딸(3살) 3명이 함께 첫 예배를 드렸다.

개척교회라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다. 이상과 현실의 싸움이 늘 부딪혔다. 하지만 당시 개척에 대한 열정이 1만장의 전도지를 인쇄하여 거리로 나서게 하였다. 매주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모와 함께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배포했다. 중산동 아파트 단지에 1만장의 전도지를 모두 붙였던 날, 마침내 한명의 성도가 교회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분은 Y교회의 첫 성도가 되었다. 길거리에서 만난 어린이와 어린이 교회도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열정으로만 부딪치는 개척교회는 공허함이 더 찾아왔다. 성도가 올 때도 있지만 나아갈 때면 실패감에 사로잡혀 힘들었다.

2018년 임대한 교회 공간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Y교회는 장항동으로 이전했다. 새로 이전한 장항동은 계획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가 빼곡한 곳이었다. 교통도 편리하고 인구도 밀집한 지역이었다. 변화가에 교회가 위치한 만큼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70만원이라는 대가를 매달 지불해야 했다.

교회를 이전하며 했던 기대와는 달리 새벽5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거리는 너무도 한산했다. 평일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상과 현실의 싸움 속에서 목회철학에 대해 고민했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치열한 고민과 기도 속에서 ‘세상의 길이 되다’의 비전을 세웠다. 개척 첫해는 열정으로 움직였다면 3년차는 목회에 대

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시간이었다.

교회이름도 Y Church로 변경하였다. 세상을 향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Y교회는 비전대로 세상과 예수그리스도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세우기로 한다.

일산 장항동은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여러 교회의 전도팀들이 거리로 나와 전도를 한다. 심지어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도 전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노방 전도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김 목사는 거리 전도에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다. Y교회는 그 고민 속에서 세상과 따뜻한 전도의 접촉점을 찾아 나섰다.

첫 번째로 찾은 플랫폼은 온라인 플랫폼이다. 일산 어머니 네이버카페 ‘일산아지매’는 30만명의 회원과 300백만개 이상의 게시글이 보유한 플랫폼이다. 어머니들은 ‘일산아지매’ 네이버카페에서 삶의 고민을 이야기 하였고, 3기 신도시 대책도 이곳에서 의논 하였고, 신앙의 상담도 교회도 여기서 찾았다. ‘일산아지매’에서 김화목사모는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소통하는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 거리에서 닫혀있던 어머니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네이버 카페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오히려 진정성을 보일 때가 많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교회 행사들을 알리고, 소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지금은 교회 행사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하면 1-2시간만에 모집이 될 때가 많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전도에 대한 열매로 이어질 때가 많았다.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플랫폼이다. 일산은 1기 신도시이다. 베드타운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30~40대 가정이 많다. 그러나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어 이혼의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이 많았다. 2018년 8월 Y교회는 고양시의 승인을 받아 ‘The 행복한 도서관’을 개관했다. ‘The 행복한 도서관’은 30~40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을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 ‘에니어그램을

통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공감대화', '나를 찾는 엄마 독서단'과 같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매주 20명 이상, 이 지역의 어머니들이 매주 교회를 찾아온다. 이 모임을 위해 김기승 목사가 직접 강사가 되어 비폭력대화, 에니어그램을 강의하고 있다.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 어머니들의 필요를 듣게 된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할 이들이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잃는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어머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신이 살아있다면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는지?' '신진지가 무엇인지?'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지?' '사후세계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세상이 오히려 교회에 말을 걸기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 7명의 어머니, 금요일 오전에 7명의 어머니들이 모여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다. 그 중에서는 전도의 열매들도 맺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다음세대 플랫폼이다. 도서관은 청소년과 대학생이 봉사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을 열어 자원봉사 수요처로서 인증을 받았다. 또한 고양시 평생학습카페로도 인증을 받았다. 그러자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 대학입시와 대학교 졸업을 위해 학교마다 봉사시간이 필수이다. 봉사의 장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열면 아이들이 찾아온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아이의 봉사를 부탁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찾아오니, 다양한 일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중 'Sky 캐슬 저항하기'라는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호응이 컸다. 이 프로그램은 일산에서 입시를 준비했던 성균관대학교 학생과 대전과학고에 진학한 학생들을 초청해 공부에 대한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었다. 관심과 공감으로 세상과 접촉점을 찾는 시간이었다. 봉사시간 중 점심시간에는 교회에서 점심을 대접하며 복음을 나누고 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과의 길의 아름다운 접촉이다. 특별한 사역들을 아무리 많이해도 복음과 연결되지 못할 때 교회는 공허하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싶어했다. 그러나 개척교회 초기는 매력적인 공간, 프로그램, 성도가 없더라는 생각에 오히려 주눅이 들어있을 때가 많았다.

Y교회는 올해 전도그림책자인 『견기시작하다』를 제작했다. 32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김 목사가 요나서를 중심으로 글을 쓰고, 일산에 사는 청년의 도움으로 그림을 그려 완성했다. 이 책을 볼 그 한 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전도책이다. 이 책을 통해 복음을 진심을 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게 된 Y교회는 지금도 한명, 한명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책으로도 만들어 약 700명의 목회자들에게도 나눔을 가졌다.

이 모든 일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면서 세상과 소통할 때 생긴 건강한 변화라고 김기승 목사는 고백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고전 13:5)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Y교회는 세상과 따뜻한 접촉점을 찾는 교회이다. 그리고 그 접촉점에서 길을 제시하는 교회이다.



### 3) 행복이가득한교회

박준기 목사

서울연회 은평동지방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2013년 11월 2일 은평구 구산동에서 개척예배를 드렸다. 교회의 갈등으로 인해 목회자가 3번 교체되는등 아픔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2014년 초 중고등부 아이들을 포함에 12명의 성도들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2016년과 2018년 교회 성장상(입교인 50~200이하)을 서울연회로부터 수상했다.

(등록교인 200명(교회학교 포함) 출석 약 100여명(교회학교 포함).

(연간 예산: 경상예산 1억5천, 월세 3,600만, 선교비 3,000만.)

#### 회복을 꿈꾸다

박준기 목사는 성민교회(왕십리소재)에서 부교역자로 11년간을 사역했다. 만 11년이 지나고 단독목회를 준비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평구 구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교회의 갈등으로 인해 담임목사를 위해 기도하던 독립교단에 소속되었던 교인들과 함께 감리교회로 11월 2일 개척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개척을 시작하고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여러가지의 문제가운데 직면하게 되었다. 먼저는 하나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상황, 청년들의 입대와 해외로 직장을 얻게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2014년 초 중고등부학생들까지 12명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는 회복과 부흥을 선언했다. 먼저 필요한 것은 회복이었고, 회복위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선포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서울연회에서 진행하는 비전세미나에 교회가 선정되었다. 약 2년간 서울연회에서 제공되는 전도비와 전도물품, 그리고 교육은 준비없이 목회지로 나온 상황에서 큰 힘이 되었다.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모임을 통해 진행되어지는 강의는 목회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시기였으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교회는 자립을 하게 되었다. 교회가 자립할수 있었던 초석이 바로 연

회의 교육과 지원이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연회의 부흥세미나를 통해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2년간 자립의 시기였다면, 2년간의 시기는 회복을 통해 부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상처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기에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회복이었다.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사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삼았고, 그렇게 지난 6년을 달려왔다. 부흥을 이야기하면 교회 성장주의로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었다. 전도되어 와도 갈등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말하자 모두가 경청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되자 교회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회복은 부흥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했다. 개척 초기부터 경상예산의 20%이상을 선교비로 지출했다. 늘 재정이 부족했기에 1순위를 선교비, 2순위를 월세, 3순위를 교회내의 지출과 목회자 사례비로 지출했다.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꿈인 선교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로 세워져갔다.

### 울창한 숲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2014년 이후로 연초에는 '말씀, 기도, 전도, 교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하다.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고, 물질이 없다. 그렇기에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고 교회공동체는 믿었다. 그리고 흘러가고, 잊혀지는 주제를 매년 마다 다시 한번 새기며 교회를 세워나갔다.

## 말씀

말씀: 개척 초기 약 1년 6개월 꾸준한 지역 전도를 했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 그 시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017년부터 교회는 '큐티 세미나와 '바이블 컨퍼런스'를 시작했다. 적은 수의 성도들이었지만 말씀 훈련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주일의 설교를 주중 5번의 새벽기도(월~금)로 나누어 다시한번 묵상했고, 큐티 훈련을 시작했다. 교회는 자체 큐티집을 만들어 처음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작은 교회이지만 말씀의 훈련에 집중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 회복을 경험했다.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2개월의 준비기간과 일주일간의 새벽, 저녁 집중 훈련을 통해 말씀의 회복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바이블 컨퍼런스에는 약 5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개척한 후 선배목사님들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은 없었지만 시간은 많았다. 그래서 교회는 큐티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큐티 세미나를 준비하며 만든 교회 큐티책에는 한달간의 주일 설교와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준비된다. 한달 전에 책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러나 부사역자가 없는 개척교회 목사에게 토요일, 혹은 주중에 갑자기 생기는 일들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달치의 말씀이 미리 준비되자 부사역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었다.

또한 큐티책으로 인해 교회에 등록된 인원들이 10여명이 넘을 정도로 개척 초기 큐티책은 교회의 힘이었다.

## 기도

기도: 개척 초기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는 없었다. 기도는 사람이 없어도, 공간이 협소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개척 예배를 드린 다음 날부터 교회는 새벽기도에 집중했다. 또한 금요일 성령집회와 토요일 중보기도학교

를 통해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나갔다.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 연초에는 40일의 새벽기도 부흥회를 통해 기도의 야성을 길렀으며, 중보기도자들을 매주 토요일마다 훈련시켰다. 40일간의 새벽부흥회는 40명의 대표기도자들이 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했으며 새벽마다 간식을 통해 행복한 새벽을 맞이하게 하였다. 아침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일간 오뎅을 중심으로 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오뎅탕, 오뎅국, 오뎅우동.. 40일이 끝나면 그 해에는 오뎅이 주일 점심메뉴에서 사라질 정도였지만, 기억나는 40일의 시간을 보낸다.

표어 초차 "오뎅먹고 출근하자"였다. 물론 청년들 중에는 "안먹고 안간다"라는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전교인이 함께 하는 기도의 회복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갔다.

또한 처음에는 2사람이 시작했지만, 중보기도자들을 세워나갔다. 현재는 토요일마다 청년들까지 약 15~20명의 중보기도팀이 운영되고 있다.

## 전도

전도: '전도는 쉽다.' '우리는 전도했고 하나님이 하셨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가진 전도의 마인드이다.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하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전반기 '예수 사랑 축제'와 하반기 '예수 행복 축제'로 전도행사를 진행한다.

전반기(매년 5월)는 속회 중심으로 전도를 한다. 관계 전도에 초점이 맞춰진 전도행사는 속회회원들을 중심으로 관계전도에 집중한다. 약 3주간의 다니엘 기도를 통해 VIP를 정하고 7주간 속회를 중심으로 전도기간을 갖는다.

하반기(매년 10월)는 전교인 전도축제로 진행한다. 효도관광을 통해 어르신들을 초청하고(2019년에는 용평으로 1박2일을 다녀왔다) 지역 바자회를 통해 지역과 소통한다. 특히 예수 행복축제 한주 전에 여는 바자회는 바자회를 준비하는 팀과 전도팀이 분리되어 한 팀에서는 양질의 물건을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

도팀은 전도에 집중한다.

2번의 전도행사를 통해 교회의 체질이 점점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었고, 부활절, 성탄절등 교회 절기에도 전도가 꾸준히 되고 있다.(2018년에도 1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전도되었고 50%이상이 등록하였다)

## 교제

교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의 마지막 핵심 키워드, 교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가진 교회였다. 그러나 갈등이 문제일뿐이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임을 분명히 하는 교회였다.

교회는 교제에 힘썼다. 특히 문화를 만드는 이에 주목했다. 필립 잠바르도 교수의 "깨진 유리의 법칙"처럼 상처난 교인들은 그 상처를 전염시킨다.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은 교인들은 새가족들의 상처를 치유시켰다.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교제의 회복, 즉 문화의 회복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다. 그 일을 위해 속회의 활성화에 주력했으며, 존중하는 문화, 사랑하는 문화, 표현하는 문화를 교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

등록교인들의 80% 이상이 교회의 따듯함에 이끌려 등록했으며, 교인들의 전도가 활성화 된 것도 우리 교회의 따듯함을 전해주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 가고 있다.

매년 여름은 일주일간의 바이블 컨퍼런스로 수련회가 시작되고, 온가족이 '2018년 제주 가족여행', '2019년 영종도 가족여행'으로 믿음이 없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과도 함께 2박3일의 가족여행을 떠난다. 이것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용납하는 문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상처 받은 사람은 위험하다'는 어느 영화의 문구와 다르게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나가는 교회가 행복이 가득한 교회이다. 동굴과

같은 목회자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는 믿음으로 세워나가고 있다.

첫 1년은 들어가도 들어가도 끝이 없는 동굴과 같았다.

그리고 2년은 어쩌면 내가 하려 했기에 동굴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라는 믿음으로 목회하고 있다.



### 3. 어린이교회

#### 주찬양교회

조은파 목사

경기연회 수원영통지방 주찬양교회는 2009년 개척된 교회다. 조은파 목사가 2015년 부임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그 후 1년동안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준비했고 2016년 키즈카페를 인수 후 키즈카페교회 라는 이름으로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현재 2년이 지난 지금 22명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 주일학교가 어렵다고 하는 요즘 주찬양교회의 어린이사역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단독목회를 시작한 후 매일 같이 질문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 봐도 어린이사역에 대한 달란트였다. 아이들과 뛰어 노는 것이 좋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린이 사역이라면 당연히 어린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다.

#### 이름도 생소한 키즈카페교회

감리교엔 아직 키즈카페교회가 없다. 적어도 2016년 당시엔 그랬다. 그렇기에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모험 이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을 만날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펼만한 곳은 키즈카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기도 끝에 키즈카페교회를 세우게 된다.

조은파 목사의 큰 고민은 ‘오는 손님들에게 이곳을 어떤 장소로 소개해야 할까?’ 였다. 키즈카페교회는 이름조차 생소했다. 그렇기에 이 길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일로 고민할 때 주변에서 먼저 카페교회를 시작한 선배 목회자들을 만나러 다녔고 조언을 얻어 이곳을 급하게 교회라 소개하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원천동이라는 지역사회에 상황화 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

키즈카페를 인수하고 1년동안 상황화에만 집중했다. 한달에 1300명(중복인원 포함)의 어린이와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 키즈카페 목회의 장점이라면, 내가 다가가지 않아도 그들이 먼저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것도 먼저 나에게 말을 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와는 다르다. 일반적인 전도는 먼저 말을 걸어야 한다. 그러나 키즈카페교회의 전도는 그들이 먼저 말을 걸어온다. 이것이 차별화된 점이다.

아이들만 올줄알았는데,

1년 후 조은파 목사는 키즈카페 교회가 다음세대를 사역하는 교회의 대안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바로 키즈카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곳은 교회며 키즈카페다 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인테리어였다.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 1년간 사역하며 생각했던 모든 아이디어를 인테리어에 반영했다. 그렇게 리모델링을 마친 후 정식으로 이곳을 교회라 선포했다. 그리고 첫 사역이 여름성경학교였다. 한달간 키즈카페에 광고를 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당일 한 가정이 등록했다. 정말 감사했다. 등록한 교인이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돌아오는 주일에 한가정을 전도해왔다. 키즈카페 교회라고 선포한지 두 주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또 한가정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두 달 만에 다섯 가정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키즈카페교회를 하면 아이들만 올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달랐다. 기성교회가 아이들을 전도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을 통해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면, 키즈카페 교회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였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 잊을 수 없는 첫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제단을 과자와 사탕으로 장식했다. 교인들과 함께 고민했다. 이 과자와 음료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모든 과자와 음료를 포항에 있는 선린애육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지진이 난 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두려움이 더 컸을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주찬양교회는 그동안 도움을 받는 교회였다. 주찬양교회가 처음으로 도움을 나눈 사역이 바로 선린애육원에 과자와 음료를 보낸 일이었다. 그 후 주찬양교회는 저소득층 여자 아이들에게 생리대를 보내는 사역, 매 분기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다.

### 첫 전교인 수련회

2018년 여름 첫 전교인 수련회를 떠났다. 주찬양교회는 온성도가 교회가 처음인 분들이다. 그렇기에 캠프 형식으로 수련회를 기획했다. 뜨거운(?)수련회 보다는 따뜻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수련회를 만들고 싶었고 아이부터 장년까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며 21명이 참석 했다.

### 어린이양육

어린이 양육은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조은파 목사 역시도 양육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18년간 어린이 사역만 하면서 느낀점은 아이들에게 말씀과 친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은파 목사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 물론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경과 친해져야 중고등 학생이 되서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은파 목사는 자신 목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목회는 끊임없는 관심과 시선이다. 어린이 목회가 그렇다. 아이들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야한다. 아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눈치채야 한다. 놀공간이 있으면 놀게하고, 배가고프면 먹이고, 아파하면 안아주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에대한 맞춤시선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른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으로 고민해야 한다.

조은파 목사는 어린이교회를 처음 개척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우려가 많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현금을 할수 있겠나?', '키즈카페가 무슨교회나?'

그분들의 조언은 나도 공감한다. 그러나, 마냥 공감만 하고 있고싶지 않았다. 확신이 있기에 뛰어들었다. '아이들이 현금을 적게하면 내가 벌겠다.' '키즈

카페가 아니라 아이들이 교회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다. 키즈 카페 수익으로, 그리고 여름 겨울이 되면 아이들 부흥회 사역으로, 주변 교회의 선교비로 아직 아무 어려움없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많이 배웠다.

디퍼런트(Different)라는 책을 보면 넘버원을 넘어 온리 원 이라는 말이 있다. 수많은 교회중에 으뜸이 되는 교회가 되는 일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한 그 하나를 사역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찬양교회는 그런 교회다. 넘버원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온리 원을 꿈꾼다.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한다. 저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온리원이 될 만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다음세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심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물음에 교회가 대답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주일학교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뛰어 놀 수 있는 교회, 주찬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키즈카페문을 연다.



## 4. 농어촌교회

### 태백 문곡교회

고길우 목사

주소 : 강원도 태백시 새밭길 7(문곡감리교회)

지역 상황 소개: 태백이라는 지역은 1908년대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생산한 광업도시였다. 그러나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연 604만에 달하던 석탄 생산량은 지난해 25만으로 급감했다. 한때 13만명이던 인구가 4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광업을 대체할 관광업 등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해 인구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도시, 폐허가 된 도시,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빠져나간 상태다. 작년 한 해 동부연합회에만 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태백시민들도, 지역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안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문곡교회 교인 수는 20명 정도이고, 여자 청년 1명이 있다. 1년 예산은 4,500만원 정도다.

### 개척동기와 과정

전도사시절 3년 동안 상계교회(현 빛가온교회)에서 아동부고학년(초등4-6학년), 그리고 행정목사로 사역했다. 엘리야 밑에서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배출되었듯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상계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와 행정,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코칭 받고, 훈련받아서 태백으로 담임목회를 나오게 되었다.

2017년 12월 3일 처음 부임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설교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되시는 문곡교회” 총 4분의 교인들과 함께 부임예배를 드렸다. “지금까지 고길우 목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이 태백 문곡교회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불황 중에도 부흥을 노래합니다.”

2017년 문곡교회 총 결산이 2,500이었다. 미자립교회였다.

2018년 1월 1일 신년예배 때 나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올 해 우리 교회는 결산이 4,000이 넘을 것이고, 15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네 명 성도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왜냐하면 10년이 넘게 미자립교회였고, 안된다는 생각, 패배주의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2018년 ‘세우심의 은총을 입는 교회’라는 표어로 교회를 재건하고, 세위가도록 성령계 간구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3일(수)~5일(금)까지 담임목사가 직접 강사가 되어서 신년축복성회를 시작했다. 느헤미야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우리 문곡교회를 재건하자! 세우심의 은총을 입자! 그래서 뜨겁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먼저 안된다는 신앙, 마음을 된다는 신앙, 마음으로 바꾸도록 기도했다. 그리고 5월 6일(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새 생명 전도축제를 열었다. 교인들에게 제가 새가족들이 많이 오실테니, 선물을 준비하자 했더니 재정 담당자가 ‘목사님 30개 정도 준비하면 되나요?’ 묻자 ‘무슨 소리입니까? 100개 준비하십시오.’ 그 재정부 권사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목사님, 이 태백은 안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 날?(주일?)은 동네분들도 태백산으로, 삼척으로, 강릉으로, 안동으로 산과 바다로 놀러갑니다.” 나는 대답했다. “왜 안된다고만 하십니까? 지금까지 저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곡교회에서, 태백에서도 함께 하실 겁니다. 100개 준비하십시오.”

드디어, 5월 6일(주일) 새 생명 전도축제가 있던 날이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새벽예배 후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 오늘이 전도축제인데,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첫 전도축제인데 비가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 비가 은혜의 비였다. 비가 와서 많은 동네 분들이, 태백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시지 않고 교회로 모두 몰려왔다. 강사는 소망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자 박효진 장로였다. 생생한 교도소 간증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다. 그리고 비가 와서 새가족분들 선물이 우산이라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전도축제였다. 그 우산을 받으면서 비를 맞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셨습니다. 모두 105명의 새가족이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전도축제를 시작하여 가을 11월 19일(월)에는 새생명전도축제가 아니라 말씀축제를 선포하고 일일집회를 열었다. 강사는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태근 목사로 욥기 23:10 '신정론적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주옥같은 말씀을 전해주었다. 문곡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많은 이들의 가슴이 뜨거운 말씀집회였다. 그렇게 2018년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던 12월 결산이 4,030만원이 넘어서 제가 온지 1년 만에 자립교회가 되었습니다. 10년이 넘게 미자립교회였던 문곡교회가 1년 만에 자립이 되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

3) 영구적인 표어 - 세우심의 은총을 입는 교회 (·참 사람 ·참 가정 ·참 교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16:18)

전임 목사님께서 문곡교회를 새롭게 건축하시고,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소천하셨다. 그리하여 문곡교회는 공석이었는데, 그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부흥의 변곡점은 문곡교회 교인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안된다는 생각을 바꾼 것이다. 그 생각을 먼저 내려놓게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담임목사가 1월 신년축복성회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뜨겁게 말씀을 전하였고, 봄철(4월~5월)에는 전도잔치를 준비하며,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전도하였다.

성도들은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이야기해도 실제가 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 신년축복성회와 전도잔치를 통해 태백에 많은 새가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몸으로 느꼈을 때 문곡교회 성도들이 달라졌다.

## 믿음과 추진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추진합니다. 그리하여 올 해 여름에는 에어 바운스를 대여해서 태백의 다음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었다.

태백에는 예로부터 천제단이라는 곳에서 많은 무당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굿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이번 10월 우리가 먼저 태백의 청년들과 태백산을 등반하여 산 기도로 무장하며 태백을 위하여 중보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태백에 보내셨는지, 다시 한 번 깨닫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 믿음의 목회

나의 목회는 믿음이다(헬-피스티스) 믿음은 다른 뜻으로 번역하면 신실이다.

우리 교회 핵심 사역 세 가지-‘기도, 예배, 전도’다.

이 기본을 충실하게 행하고 싶습니다. 운동도,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다.

매일 저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뜨거운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경험합니다.

전도는 매일 삶의 전도, 관계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 폐허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저는 폐허가 된 이 땅 태백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의지한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팩트(fact)만 믿고 싶어 한다. 그러나 우리는 팩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보다 하나님을, 명예보다 하나님을, 지식보다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는 팩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문곡교회가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이 땅 개신교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삶을 해석하  
고 기적을 맞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5. 복지중심교회

### 안산 푸른숲교회

윤명진 목사

푸른숲교회는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 2층
- 지역 상황 소개 : 입교인 22명, 세례인 4명, 세례아동 2명, 원입인 11명으로 총 39명  
장년층이 12명이며 청년은 18명, 청소년 3명, 아동 6명이다.
- 장년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출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세 가정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교인 자녀인 4명을 제외하면 모두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출석하고 있다.
- 교회의 작년 결산은 22,029,310원이다.
- 교회의 연혁 : 1991년 3월 3일 안산지방 원곡동에서 창립  
2012년 4월 윤명진 목사 6대 담임자로 부임  
2014년 1월 안산남지방 본오동 856-20번지 카페교회로 이전  
2016년 1월 본오동 879-16, 현 위치로 이전

### 막막한 개척

푸른숲교회는 1991년 3월 3일에 창립되었고 그 동안 5명의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긴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떠났으며 윤명진 목사는 푸른숲교회의 여섯 번째 담임자로 2012년 4월에 부임하였다. 바로 직전에 사역하던 배광교회에서 1년 동안 풀타임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개척을 결심하여 개척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자리를 구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다. 개척자리를 구하기 위해 교회 부동산 자리를 중개해주는 사이트와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도 매일 살펴보면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면 계속 찾아다녔다. 개

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앞에 계속 시험에 드는 자신을 보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개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여전히 속마음은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었다. 누구하나 어떻게 개척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후임자 구하는 교회 공고가 올라오면 정신없이 돌아다니기만 했다. 개척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개척에 관한 과정을 쓰게 되니 참 감개 무량하다. 함께 사역했던 동료 전도사가 연회주소록에서 정1 되는 목회자가 많은 지방은 그만큼 부목사로 많이 옮겨가니 그런 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에 뭔지도 모르고 연회주소록만 계속 쳐다본 적도 있다.

어느덧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물을 보면서 인천, 부천, 성남, 일산, 서울 등 도시를 계속 돌아다닌 것만 2개월이 넘었다. 그러다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장소가 있으면 부부의 마음이 서로 안 맞거나 다짜고짜 그 지방 선교부 총무에게 전화로 개척하겠다고 전화했는데 퇴짜를 맞았다. 계속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마침 고향인 대전에서 친구들이 내려와서 함께 개척교회를 세우자고 말을 전해왔을 때 많이 고민했지만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마음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아내의 몸이 많이 상하게 되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안 그래도 개척 과정이 순조롭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울 때 아내마저 몸이 힘들게 되니 이런저런 불평만 나올 때 하나님은 계속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마음만을 주셨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는데 4월 첫 주에 방문한 병원 주치의로부터 한 달이나 빨리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인가 생각이 들어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게시판에 안산에 푸른숲교회 후임자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제일 먼저 연락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 속에 바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

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제가 후임자로 와도 되겠냐고 여쭙봤고 이를 뒤에 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웬만하면 내가 후임자로 오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셨다. 결국 이를 뒤에 연락이 와서 바로 일주일 뒤에 후임자로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3천만원의 보증금이 문제였다. 손을 벌릴 곳이 없어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아들의 목회를 위해서 언젠가 쓰일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시며 모아 둔 돈을 선뜻 내어주셨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개척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재정의 문제이지만 큰 어려움 없이 보증금을 준비하게 된 것은 매우 큰 도움이었다. 아마도 보증금을 비롯한 월세와 같은 재정의 어려움은 모든 개척자들의 가장 큰 과제이다. 어떻게든 모아 둔 돈으로 개척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만약 부사역자로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개척을 나갈 수 있도록 재정을 모아 두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에 사역하던 목동교회와 배광교회의 성도들을 초청하여 안산지방 실행부의 주관으로 부임예배를 드렸다. 보통 부임 예배는 처음 개척을 나온 신참 전도사에게 재정적으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이다. 감사하게도 사역했던 교회와 성도들이 현금을 해주셔서 초기에 어려움 없이 목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또한 부임 당시 30명되는 2층 교회에 교인은 남자 집사 1명과 전도사 부부와 아들 1명이었는데 집사님께서 매달 교회의 월세 50만원보다 더 많은 현금을 해주셔서 월세 걱정 없이 목회를 시작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이들에게 같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개척자들을 어렵게 한다. 어떻게든 교단에서 미자립교회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면 목회자들이 더 힘을 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린 자녀를 둔 전도사 부부가 교회의 월세는 해결했지만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그동안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었던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담임자와 사모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모교회들과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 그리고 개척 첫 해에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창현 교수님이 진행하셨던 목회전문학교에서 만난 목사님들을 찾아가

서 목회에 대한 조언을 듣고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후원을 요청드렸다.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 어떻게든 생활비를 마련해서 목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러움 없이 찾아가서 요청을 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젊은 전도사의 요청에 흔쾌히 후원을 결정해주신 선배 목사님들께 너무 감사하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후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열심히 목회를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당당히 후원을 요청하고 당당히 목회를 하고 있다.

주변이 빌라로 둘러 싸여있고 젊은 아기 엄마들이 많은 것을 보고 교회의 한편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과 미끄럼틀 등으로 꾸며놓고 1년 동안 각종 전도지와 홍보지를 나눠주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 때 깨달은 것은 교회가 어설픔게 꾸며놓고 서비스를 하면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사이 대학 시절 후배 1명이 교회에 등록했지만 1년 뒤에 그나마 있던 남자 집사 1명과 후배도 주변의 큰 교회로 떠나버리고 1년 정도를 담임자 가정 세 식구만 예배를 드렸다. 세 식구만 예배를 드리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을 때인 2013년에 안산대학교 채플 찬양인도를 맡고 있던 동역자의 소개로 안산대학교 사역에 함께 하게 되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예배하는 사람도 없다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다가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안산대학교 채플 사역은 지금까지 윤명진 목사의 가장 크고 비중 있는 사역 중의 하나이다.

그렇게 외동에서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과감하게 교회 이전을 결심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예배당을 지키는 것보다 안산대학교와 더 가까우면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에 안산지방에서 안산남지방의 본오동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아마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셨던 것 같다. 본오동의 1층 상가를 임대하여 인테리어를 카페처럼 꾸미고 영업을 하지는

않지만 지나가는 어느 누구든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바랐다.

어설피게 서비스를 하고, 반드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등록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하면, 아무도 교회에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핸드드립 커피와 음료수와 vitam을 나눠드리기 시작했다. 무료지만 모두가 만족할 만큼 좋은 품질의 음료를 드리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고 함께 어울려 살면서 동네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세상 밖의 교회가 아닌 세상 안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도한 카페 스타일의 교회는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누구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작은 미자립 개척교회의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임대료와 목회자 가정의 생활을 위해 사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연이 되어 한 아이의 엄마가 교회를 등록하였고 그 엄마의 전도로 또 한 아이의 엄마가 등록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옆의 편의점에 왔다가 교회 테라스에 모여서 노는 것을 발견하고 연인들이나 한다는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물음에 교회에 들어온 것이 지금 청년이 되어서까지 교회를 잘 다녀주고 있다. 또한 안산대학교에서 만난 청년들이 한 두명 오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두가 다 초신자라는 사실이다.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옮기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아니면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이렇게 초신자들이 하나 둘 모여서 2년이 지난 후 2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작은 1층 상가에 모여서 시작된 카페 교회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장소를 찾다가 정착한 곳이 지금의 아파트 앞 상가이다. 생각해보니 2년에 한 번씩 교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조금은 부담

스러웠지만 성도들과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었다. 그리고 작은 1층의 공간이라 전도를 해도 전도대상자가 부담스러워 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장소를 옮기면서 단 한 번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만 움직이지 않았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을 구하고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처음 개척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철칙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부임 5년 차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시작하며 교회의 표어를 정했다. 나름대로 함께 한 세월이 있으니 이제 초신자들도 조금씩 예배에 익숙해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으니 그들과 함께 평생 나눌 수 있는 표어를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정한 것이 ‘예배와 제자훈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다.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예배와 제자훈련이었다. 막연하게 느껴지던 선교라는 단어가 성도들의 삶에 정착이 되려면 삶에서의 예배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한 제자훈련의 단계는 반드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제자훈련의 기본 원칙은 일대일 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룹별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임원 공천 내규에 제자훈련 과정을 임원 필수 규정으로 넣어서 반드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한 사람만이 임원이 될 수 있게 하였다.

### 새롭게 열리는 길

다시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30명의 교인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교회론의 정립과 교육이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가 별로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교회 공동체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개척 2단계 때의 카페 교회

를 떠올렸다. 불신자들과의 접촉점을 늘리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상상하며 새롭게 ‘청소년 문화공간 너나드리’를 오픈했다. 물론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해 교회 옆의 상가 공실을 하나 더 임대했다. 기존의 임대료에 하나를 더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임을 알고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청소년 문화공간 너나드리는 ‘왜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다.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놀고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함께 하는 공간이다. 교회가 위치한 안산시 본오동은 시화, 반월 공단의 노동자들이 많고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도 반겨주는 가족들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청소년들이 자꾸만 범죄의 온상이 되는 우범지역과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이 안타까웠다. 세상 밖의 교회가 아닌 세상 속의 교회가 되기 위해 시도한 사역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아직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운영을 하고 운영자가 목사인 것도 다 알아 버린 아이들은 전혀 거부감 없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바른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함께 하다보니 청소년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금 하루 평균 25명 정도의 청소년이 너나드리를 방문한다. 작은 미자립교회가 사회복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도 없이 온전히 교회가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너나드리 만을 위한 후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한창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먹는 라면과 간식의 양은 실로 엄청나다. 재정이 부족해서 라면 밖에 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상담과 멘토링까지 해주는 너나드리가 좋아서 매일 온다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절로 힘이 난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상가 교회지만 임대료가 전혀 아깝지 않게 교회 공간을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교회가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지역의 요구를 빨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함께 호흡해야 한다.

때맞춰 안산에 안산시청소년협의회라는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연합체가 생겨났다.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 민간단체는 처음에 자리를 잡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연합체 안에서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 등을 하다 보니 교육청소년과 공무원이나 시의원들과의 대화의 창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신 만남의 축복이라 생각하며 다양한 복지 활동 등을 하고 있다.

## 복지목회

나의 사역은 복지목회이다. 교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행복과 복지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

핵심 사역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제자훈련이다. 초신자들이 성도들의 대부분이다보니 기초 단계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한 훈련코스가 4단계로 준비되어 있다. 두 번째 핵심사역은 캠퍼스 사역이다. 2013년부터 시작한 안산대학교 사역을 통해 지금까지 4명의 청년이 새롭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다수의 청년들이 제자훈련 코스에 함께 하고 있다. 세 번째 핵심사역은 청소년 문화공간 너나드리다. 안산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다.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개척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에만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 작은 교회도 충분히 지역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작지만 강한, 강소형 교회가 많아질 때 교회는 작은 곳의 신임에도 응답할 수 있다.

## 6. 문화중심교회

### 오병이어교회

장동근 목사

1972년 천안 출생으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친 후 2004년 오병이어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 개척 후 14년 동안 문화를 통한 지역 섬김과 불신자 전도를 위해 여러가지 문화선교 프로그램들을 연구하며 시도해 왔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2017년 충청연회에서 부흥성장하는 모범교회 표창을 받았다.

미술 선교를 소망하며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한국미술인선교회 주관)에 특선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이후 2017년 가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담은 십자가 조각 작품들로 전국 여러 교회를 다니며 십자가 순회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 지역 상황

주소 : 천안시 동남구 통정 7길 3

- 10년 전 천안시에서 새롭게 택지개발을 한 지역입니다.

30~40대 젊은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교인수 : 재적 약 300명 (어린이 120명 / 성인 180명)

연간예산 : 약 2억

교회연혁 : 2004년 5월 오병이어교회 설립 (성인 20명 / 어린이 50명)

2005년 11월 두번째 예배당으로 이전 (성인 30명 / 어린이 100명)

2010년 10월 예배당 건축 / 입당예배 (대지 133평, 건평 150평)

2015년 복합문화공간 상상제페토 매입 (대지 103평, 건평 70평)

## 개척동기와 과정

한쪽 손이 없는 큰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홀로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고 3년간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로 술을 마시면서 알콜 중독자가 되었고 이어 매일 밤 악령에 시달리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어릴 적 다녔던 교회를 다시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기적을 행하셔서 악령으로부터 그리고 그리고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알콜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제 삶에 기적을 경험한 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과 이런 하나님을 전해서 나같은 인생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미술대학 공부를 마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서른셋에 신학공부를 마쳤습니다. 마음에 교회 개척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부교역자 경험없이 바로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개척할 돈이 없어 처제에게 보증금 천만원을 빌려 지하 20평 공간을 임대했고 2004년 5월 6일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서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면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이런 저런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첫번째 예배당에서 1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 월 37만원이었는데 갑자기 월세를 60만원으로 올려서 그렇게는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나가라고 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두번째 예배당은 아파트 단지내 상가 지하였는데 7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전보다 전도하기 훨씬 더 좋은 자리에서 그 넓은 공간을 보증금 천만원에 월 60만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배당에서 지낸 6년의 시간 동안 스스로 교회를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전도해서 6년이 지났을 때 출석 성도 성인 약 30여명, 어린이가 100여명이 되었습니다.

2010년 30여명의 성도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적은 인원으로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도들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모든 개척교회가 경험하는 것처럼 재정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15년간 어떤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나온 15년간 저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고, 돈이 필요하면 가구를 만들어 팔거나 인테리어 작업을 하거나 각종 디자인 작업을 통해 수익을 얻었습니다. 미술전 공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어릴 적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끔찍한 가정폭력을 보면서 자랐고, 저 자신도 마음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과 싸움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꿈을 가지고 15년 동안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단 한 번도 성도 간에, 그리고 제가 큰 소리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는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입니다. 이 표어는 교회 옥상 가장 높은 곳에 붙어 있습니다.

개척초기 멤버는 저와 어머니, 집사람, 그리고 처제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 소년소녀가장이었던 학생을 딸로 받아들여 이렇게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설립 예배 전 이십대 초반의 청년들이 찾아와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열 다섯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였는데 돌아보면 그 외침으로 오병이어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고 저도 행복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 새로운 전기

교회를 개척한지 6년이 지나 2010년에 150평 예배당을 아름답게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이 교회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고 또 아파트 공원에서 음식을 만들어 사랑나눔잔치도 하고 김장도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문화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문화를 통한 선교에 집중을 했고 지금까지 100여가지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시도했습니다. 교회 앞 건물을 매입하며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고 갤러리를 만들고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미술 음악 요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병이어교회에 새가족이 된 분들은 모두 여러 종류의 문화프로그램들을 참여하기 위해 몇 번씩 방문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별별상상 문화학교를 진행하여 현재 토요일 70여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동요리, 미술, 악기교습 등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의 부모님은 아직 교회의 성도가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

문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또 전도를 위해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지만 문화는 교회의 모든 영역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하모니카팀, 바이올린팀, 기타팀, 오카리나팀, 중창단 중 하나에 가입하여 주일 10시에 모여 연습을 하고 돌아가며 예배에서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선교에 대한 확신과 집중으로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목회 특징과 강점은 감성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감성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감성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성디자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날 갑자기 꽃다발을 전해 준다거나, 마니포를 정해서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서로 간에 그리고 저와 성도 간에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사이를 더욱 아름답고 깊게 합니다. 감성목회가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교회에는 7명의 핵심 멤버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척초기부터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핵심 멤버들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리더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삶을 드리기로 약속한 이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멤버들을 세우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우리들만의 약속이 있는데 각자 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 매일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모여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두고 회의하며 준비합니다.

## 마치며

저는 목회의 목적이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교회 핵심 사역은 문화선교, 마을 전체를 섬기는 교회, 다음세대 교육입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교회로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미술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다시 미술을 시작했고, 그것을 통해 선교의 영역이 매우 크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강점으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7. 청년 교회

### 서울 패스커뮤니티교회

지모정 목사

교회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363-3 문화빌딩 지하1층 (노원역10번출구)

#### Story가 History가 되게 하라

추억으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주님의 손에 맡겨 질 때에 역사가 된다.

패스커뮤니티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모든 목회 초점을 맞춘 교회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에 집중하는 교회이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6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자, 교육특구이고 중고등학생들이 6만 명 이상 있는 다음 세대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다. 우리 노원지역에는 장애인 학교 포함 54개의 중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교가 있다. 또한 젊은이 들이 많이 주거하는 곳이기도 하다. 노원구에 노원역이라는 지명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다른 곳은 멀다고 느끼지만 노원역이라는 지명은 모두가 가까게 느껴지는 이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노원역은 어떤 곳인가 묻는다면, 모든 문화시설과 쇼핑시설, 맛집, 놀이거리가 밀집되어 있다. 다음 세대를 품기 위해서는 “노원역”이라는 이름이 주는 힘, 그리고 콘텐츠가 필요했다. 그래서 교회를 노원역이라는 역세권 안에 개척을 하였다.

우리 교회 개척이야기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시작된다. 2011년부터 찬양 사역팀을 운영하고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부르신 곳은 땅 끝 해남, 완도까지도 가서 다음 세대와 함께 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을 확실하게 허락하셨고, 그러던 중에 2013년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교회 개척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노원역에 거점으로 부동산 투어만 6개월, 2014년 2월 첫 번째 장소 계약, 두 달간의 소송, 그리고 계약파기 그리고 5월 3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았던 지하 60평을 임대하면서 철

거도 직접하며 동시에 교회 세팅 공사를 시작하며 한 달 반을 몇몇의 청년들의 도움으로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소품, 그리고 세팅을 손수 완공하였다. 2014년 8월에 제자 청년 1명과 함께 시작한 목회가 지금은 개척 6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지금은 교인 재적 62명, 평균 출석 48명이상 출석하는 교회이다. 교인수의 90퍼센트 이상은 20대~30대 청년들, 청소년 3명, 부부 4가정이 교회에 출석되어 있다. 매년 20명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면서 영적인 채움을 얻기 위해서 매주 5명 이상의 게스트들이 방문 하고 있다.

교회 예산은 개척한 해에는 개척 비용을 빼고 순수 현금 수입만 900만원 되었다. 그리고 2016년 1500만원, 2017년 2500만원, 2018년 3000만원 정도 총 결산을 보았습니다. 2019년은 4000만원 정도 결산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처음에 몇몇 교회들이 매달 40만원 정도 도움을 주셔서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도움은 또 다른 개척교회와 선교지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 매년 4~5 곳을 후원하였다. 남아공선교사 부부와 청소년 사역단체 나비야를 후원하고 있다. 도움 받는 교회에서 도움 주는 교회로 남고 싶다. 또한 후원에 교회 유지의 비중을 줄이고 싶었다.

## 개척동기와 과정

평생 개척교회 아버지 밑에서 힘들게 자라 온 저에게는 개척은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목회 방향이었다. 그리고 2011년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확고했고, 내가 청년들이라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알고 있는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작은 교회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4명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기도모임을 매주 갖게 되었다. 기도 모임을 할 수록 더욱 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야 한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아는 청년들을 데려오기 시작했고, 잘 훈련시켜서 전국을 다니면서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고 집회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은 커져만 갔다. 그렇게 찬양사역자로 전국으로 집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게는 개척의 길은 내 길이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대문구 회기에 있던 교회에서 노원구에 위치한 교회로 사역팀의 본부를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격렬히 거부하다가 결국 어느 날, 평소와 같이 노원역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개척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셨다. '너가 평생 자란 이곳에 너가 밀알로 썩어져라' 라는 마음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신시켜 주셨다. '너의 썩어짐을 쓰시겠다' 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거부하던 제가 '그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로 응답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교회를 시작 하려면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했다. 두 다리가 튼튼하니 부동산을 6개월을 알아보았다. 그 기간 동안 계약, 소송, 그리고 재계약까지 쉽지 않았다. 장소는 찾았는데 그리고 문제는 돈이 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셨던 강력한 음성은 '너의 것을 먼저 전부 헌신해라' 였다. 7년 동안 부었던 생명보험이 떠올랐다. 그것을 해약하니까 딱 천만원정도 생겼다. 그리고 또 생각 난 것이 주택청약적금이다. 그것도 과감히 깎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일원도 빠짐없이 다 드렸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노원지방을 통해서 천오백만원을 지원해주셨고, 이랜드미션에서 이례적으로 천만원 후원, 그리고 개척예배에 나온 헌금이 무려 2천5백만원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총 6000만원이라는 돈이 채워져서 완벽히 교회를 세팅할 수 있게 되었다.

## 비전과 전략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지역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각종 행사, 대회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함께 설립하고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장을 제공하는 사역을 했다. 노원 지역에 다음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대회들을 개최하면서 노원경찰서, 노원청소년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저희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노원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밴드가 교회에서 밴드 공연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청년 선교단체, 청소년 선교단체 두 곳이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모임하는 곳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노원구에 있는 밴드부, 댄스부에게 장소를 대여하고 있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들과 친숙해지고 있다.

### 개척교회의 어려움

개척예배는 지방목사님들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로 가득 매워서 드렸다. 하지만 진짜는 제자 1명과 함께 교회가 시작, 예배에 더 집중했다. 내가 먼저 은혜가 가득한 예배로 만들어야만 했다. 1명도 은혜 받지 못하는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매주 열심히 예배했고, 기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매달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 130만원씩 지불 해야만 했다. 엄청난 액수의 월세였지만 ‘망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망하라 하시면 망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외치면서 나를 부르시는 어느 곳이든 다니며 열심히 사역하고 음향 아르바이트, 청소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밀리지 않고, 또한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셨다. 그만큼 언제든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면 달을 각오가 나에게 있었다.

개척하면서 가장 큰 도움이자 큰 힘은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청년들 4~5명이 1년 동안 와서 예배가 썰렁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다. 또한 개척하면서 갖어야 할 목회 방향과 태도를 올바르게 지도해주셨고,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언제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것이다. 재정적인 지원보다 더 값진 지원을 아낌없이 주셨다. 격려와 응원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차기를 함께 기도해주셨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항상 어려움은 사람이었다. 개척교회에게 한 사람 나오고 앓나오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 평생 함께 할 것 같이 이야기하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목회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기쁘게 보내려 애를 썼다. 우리 교회는 파송을 아주 기쁘게 한다. 청년들이 오는 것도 환영하면 가는 것도 환영하며 보내자. 속마음은 섭섭해도 티내지 않고 기쁨으로 그들을 다른 교회로 파송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붙여주셨다. 청년들을 파송하면 꼭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청년들이 찾아왔다.

개혁교회는 항상 전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맛집을 찾을 때 어디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전단지로 홍보하지도 않는다. 맛집은 소문을 타고 특히 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본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에 힘을 빼지 말고 영적인 맛 집이 되고자 애쓰기 시작했고, 예배를 여러 번 만들어서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번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기로 했다. 평일은 지역에 청소년, 청년들에게 밴드 연습실로 빌려주고, 댄스 연습실로 빌려주고, 지역 동호회들에게 공간 대여하고, 주일에 모든 우리들의 에너지를 한 번 예배에 쏟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 전도는 sns를 열심히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이버에 파워링크, 지식인, 블로그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교회에 대한 예배를 잘 정리하고 첨부해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는 청년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 인원이 몇 개월에 한 두 명씩 오다가 정착하고 한 달에 한 명, 지금은 매주 한 명씩은 교회를 방문한다.

### **패스커뮤니티교회 목회**

- ① 간섭하고 참견하는 목회 - 그들의 삶에 문제에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둔다.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모든 시간을 맞춘다. 공휴일 또는 쉬는 날, 시간이 있으면 무조건 청년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식사하고 차를 마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 하나 간섭한다. 그리고 참견하고 결정해주고 성경적인 길들을 제시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 (예- 부부싸움도 참견한다)

- ② 제자훈련 목회 - 나만의 제자훈련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주 한번 2시간씩 제자훈련을 한다. 1시간은 삶의 문제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1시간은 제자양육 교제를 가지고 제자훈련을 한다. 성도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은 담임목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영역임이 틀림없다. 매주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어라.
- ③ 창조적 목회 -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지 않는다. 기존 교회의 절기, 특정 기념일의 행사들이 모두가 같다. 그러다 보니 매년 해치워야 하는 행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교회 행사가 없다. 매년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마음이 주시는 대로 행사를 벌인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청년들이 행복해 한다.
- ④ 배려목회 - 사소한 것도 배려하라. 청년들이 기존 교회에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 환영 인사 시키는 것(일어나는 것, 앞에 나오게 하는 것)
  - 신앙을 강요받기를 싫어한다. 자발적인 것을 빼앗는 것(다음 주에 꼭 와라)
  - 무조건적인(전공에 따른) 봉사를 시키는 것
  - 오래된 멤버십들이 너무 친한 것. 파별이 나뉘져 있는 것
- ⑤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라 - 지역에 독보적이고 부족한 부분을 파고 들 수 있는 것을 공략하라.
- ⑥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택하라 - 남들을 따라하지 마라.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택하라.
- ⑦ 어설피게 아는 척 하지 마라 - 어설피게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한다. 모르면 정확히 모른다. 실수를 했으면 빠른 사과를 하라. 성도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
- ⑧ 전심을 다하라. 내 삶을 잘 정리하라. 1) 우선순위 2) 초점집중 3) 댕가지불
- ⑨ 영적인 것에 철저한 케어 - 말씀과 기도생활, 제자훈련 체크
- ⑩ 예배로 지치지 않게 한다. 한 번의 예배를 최선으로 드린다.

## 패스커뮤니티교회의 표어

- 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교회 - 특히 청년들은 너무 많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 잡혀 산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삶은 변화하지 않음을 인식했다. 예수님을 만나도 잠깐 열정적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청년들 안에 깊이 박혀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청년들은 교회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제자훈련과 주일설교, 그리고 셀 모임까지 철저하게 하나의 가치관으로 오직 성경적 복음만을 이야기한다. 다양한 성경공부와 기독교 서적을 공부함으로 계속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도록 돕는다. 또한 삶을 계속 해서 간섭하고 참견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가치를 심으려고 애를 쓴다.
- ②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 모이는 것에 힘쓰는 것은 오직 세상에 흩어지는 것을 위한 것임을 철저히 주입하고, 모이는 것보다 세상에서 살아내는 것을 강조한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매일 살아내는 것을 강조한다. 교회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도록 한다. 교회는 잠시 도피하는 도피소이다.
- ③ 상식이 통하는 교회 - 얼마나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은지 모른다. 기성 교회가 너무 보수적이고 또 너무 진보적이지 않도록 교회가 중립적인 것을 잘 지키고 오직 복음의 상식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 ④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 모든 교회 행사와 모든 교회의 일원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것에 총동력을 쏟는다. 모든 재정, 모든 시간, 열정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은 아끼지 않고 지원한다. 사비를 털어서도 다음 세대 사역에 시간과 재정을 쏟는다.

## 리더 세우기

리더들을 세우고 제자와 무리를 정확히 구별시키면서부터 교회가 영적으로 숫적으로 성장함을 느꼈다. 우리 교회는 총 13명의 리더가 세워져 있다. 20~33

살까지 분포되어있고, 총 9개의 셀 모임으로 모인다.

- 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 - 설교 메시지를 매일 노트에 적고 적용한다. 영적인 통일성과 영적인 하나 됨을 강조한다.
- ②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을 하려는 사람
- ③ 성도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 - 주일 출석, 십일조, 봉사를 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한다.

나의 사역은 마라톤 달리기다. 핵심은 사역은 제자훈련, 찬양사역, 학원선교다.

- a. 1:1 제자 훈련 -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
- b. 찬양사역 - 시대에 맞는 찬양(음악의 흐름, 영적인 흐름의 중요)
- c. 학교사역 - 캠퍼스,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사역(8개 학교 사역)

## 맺는 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와 비전이다. 개척은 준비한 만큼 영향력 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마라. 내 목회 현장성에 최대한으로 응용하라. 좋아 보이는 것을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하라. 내가 목회가 즐겁지 않으면 성도들도 즐겁지 않다. 목회자가 지치지 않게 모든 교회의 예배와 행사를 세팅하라.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것도 지혜임을 명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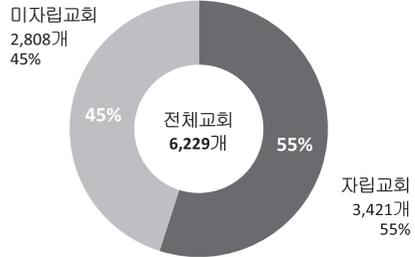


# Ⅲ. 개척 후 지원 가능한 정책

## 1. 감리회 미자립교회 전체 현황

### 1) 2018년 결산 기준

자립	3,421
미자립	2,808
전체	6,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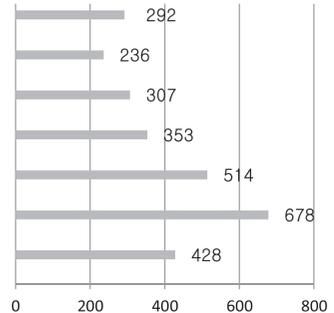


### 2) 연회별 교회 집계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선교	합계
전체	394	395	1,074	781	557	676	414	605	650	410	273	6,229
자립	250	224	625	410	321	404	191	274	413	195	114	3,421
미자립	144	171	449	371	236	272	223	331	237	215	159	2,808
미자립율(%)	36.5	43.3	41.8	47.5	42.4	40.2	53.9	54.7	36.5	52.4	58.2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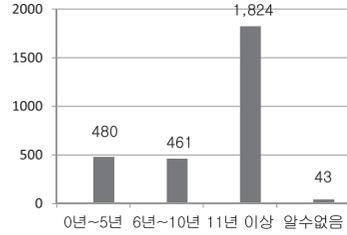
### 3) 경상비 기준

경상비	교회수	백분율
0~500만원 미만	428	15.2%
500만원~1,000만원 미만	678	24.1%
1,000만원~1,500만원 미만	514	18.3%
1,500만원~2,000만원 미만	353	12.6%
2,000만원~2,500만원 미만	307	10.9%
2,500만원~3,000만원 미만	236	8.4%
3,000만원~3,500만원 미만	292	10.4%
합계	2,80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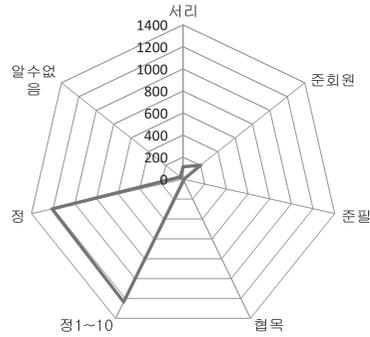
#### 4) 교회 설립 기준

설립기간	교회수	백분율
0년~5년	480	17.1 %
6년~10년	481	16.4 %
11년 이상	1,824	65.0 %
알수없음	43	1.5 %
합계	2,808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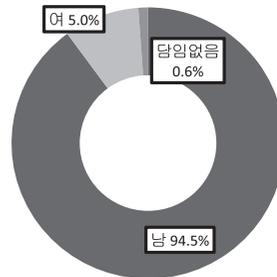
#### 5) 담임교역자 자격 기준

자격	교회수	백분율
서리	113	4.0%
준회원	203	7.2%
준필	5	0.2%
협목	11	0.4%
정1~10	1,235	44.0%
정	1,209	43.1%
알수없음	32	1.1%
합계	2,808	100.0%



#### 6) 성별 기준

성별	교회수	백분율
남	2,525	89.9 %
여	251	8.9 %
담임없음	32	1.1 %
합계	2,808	100.0 %



## 2. 연회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 1) 서울남연회 미자립교회 정책

#### (1) 서울남연회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 ① 각 지방별로 1개의 미자립교회를 선정하여 총 15개 교회에 매달 50만 원 씩 1년 동안 지원한다.(단 선정된 교회의 목회자는 연회에서 실시하는 집중지원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 ② 본 연회 안에서 목회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교역자를 위한 전도세미나 및 교역자 부부의 영성과 삶을 위한 지원교육을 실시하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협의, 실시한다.
- ③ 미자립교회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연구활동을 한다.
- ④ 전도학교를 중심으로 비전교회를 위한 지원전도를 실시한다.

#### (2) 서울남연회 미자립교회 지원 프로그램

- ① 목회지도력 강화위원회 비전교회 지원팀
  - 15개 교회(각 지방당 1교회) 선교비 지원(월 50만 원)
  - 년 4회 교육
- ② 서울남연회 전도학교 비전교회 지원 전도행사(순회전도)
  - 년 4회(전반기 2회, 후반기 2회) 실시

### 2) 중부연회 미자립교회 정책

#### (1) 비전교회 및 도약교회 성장학교 실시

##### ① 참석대상자선정

- 지방별로 감리사와 총무에게 공식공문을 발송하여 행사내용을 알린다.
- 지방별로 선교부 총무를 통해 비전교회 1인, 도약교회 1인을 추천받는다.

- 단, 비전교회를 우선으로 하며, 전년도 참석했던 자는 후순위로 한다.
- 각 지방 선교부 총무는 자율적으로 참석한다.

단, 해외연수에는 소정의 자부담을 전제로 참여할 수도 있다.

## ② 탐방교회 및 강사섭외

- 탐방할 교회와 강사는 교단을 초월하여 선정한다.
- 스포츠, 지역섬김, 전도등 성장학교 교회에 도움이 되는 모든영역에서 선정한다.
- 각 지방별로 탐방희망 교회를 추천받는 방법도 좋다.

## ③ 교육 Time Table

- 오전/ 교회탐방 및 담임목사 강의
- 점심/ 식사
- 오후/ 특강 (외부초청강사)
- 조별웍샵/ 출결정리, 적용나눔, 보고서제출
- ※ 매주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조별리더를 선정하고, 매주 시상식을 한다.

## (2) 전도학교 운영

- ① 웨슬리전도학교를 통하여 운영한다.
- ② 교회 성장학교에서 형성된 전도그룹으로 5회 이상의 강의와 실습을 한다.
- ③ 속회강습세미나 일정 중 전도 강의를 함께 한다.
- ④ 지역별(인천, 시흥, 김포강화, 부평...) 전도학교를 오픈 할 수 있다.
- ⑤ 연회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3) 동부연회 미자립교회 정책

프로그램	내용
비전교회 세미나	
어려운교회 보수지원사업	동부연회 교회들의 지원과 연회지원으로 비전교회들 보수지원
장학금 지원	결산액 5,000만원 미만교회 생활비 100만원 미만교회 교역자 자녀(고,대학생)
연회부담금 면제	2019년도 105개교회(결산액 1,000만원 미만)
위기교역자 소액대출	한도액 200만원에 한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대출

### 4) 충북연회 미자립교회 정책

#### (1) 개척교회에 개척지원금 지원

-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 교역자부부를 연회로 초청하여 식사 대접과 함께 100만원의 개척금 지원

#### (2) 비전교회 위로회

- 매년 1월 중 지방별로 비전교회 3-4가정 부부를 초대하여(감리사 포함) 1박 2일로 단양대명콘도에서 위로회 실시

#### (3) 입원, 수술비 지원

- 20만원-100만원 한도 내에서 갑작스런 의료 지원이 필요할 씨 지원

#### (4) 재난 피해 지원금

- 비전교회가 갑작스런 재난을 당한 경우 위로금 100만원 지원

### 5) 남부연회 미자립교회 정책

#### (1) 각 지방별 코칭 사역

- ① 각 지방별로 코치를 1명씩 선임하여 비전교회 목회자들과의 모임을 1개월에 1회 영어 설교, 전도, 기도사역, 심방 등 목회 전반에 관해 코칭을 한다.

- ② 코치는 교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듣고 건강한 교회와 사역을 세워가도록 도와주며, 목회자가 사역의 방향을 잘 잡도록 코칭해 준다.
- ③ 각 지방 코치에게는 월 1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한다.
- ④ 각 지방 코치는 코칭사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 ⑤ 각 지방 코치들은 연 1회 재교육과 연석회의를 갖는다.

## (2) 연회 성장모델교회 코칭사역

- 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전교회와 소예산교회의 목회자를 선발하여 연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교회성장을 도모하여 교회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 ② 모델교회 선발은 각 지방 감리사의 추천으로 비전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 참석자 만장일치로 선발한다.
- ③ 선발된 10개 교회는 연회차원의 매월 정기적인 그룹코칭을 실시한다.
- ④ 선발된 대상교회 목회자에게는 매월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 ⑤ 시범기간 내에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 ⑥ 대상자 각 사역에 맞추어 필요시 세미나나 교육 및 개인코칭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한다.

## (3)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

- ① 교회개척성장학교
  - 매년 5-6월 중에 3박 4일 일정으로 실시
- ② 전도세미나
  - 매년 11월 중에 50개교회(300명)의 목회자를 초청하여 실시

## (4) 코치교육

- 매년 1회 연회본부에서 실시

## 6) 호남선교연회 미자립교회 정책

### (1) 호남개척선교회 설립

#### ① 호남개척선교회 설립취지

- 호남특별연회내 1년 1교회 추진(전략적 개척)
- 호남특별연회 미자립교회 159개(58%) 대책수립

#### ② 연회내 호남특별연회 개척선교비 모금운동(2020)

- 50교회 선교비 100,000원/월×12개월 년6,000만원 선교비 모금

#### ③ 타연회 100교회 선교비 지원 100,000원/월×12개월 년6,000만원

#### ④ 1만원 개척 후원금 모금운동(개인 및 평신도)

- 500명×1만원/월×12개월 년 6,000만원(2020년도)

#### ⑤ 호남특별연회 개척선교주일 9월 첫주(9월1일)

#### ⑥ 호남특별연회 1년 1교회 개척 추진(전략적 개척)

### (2) 개척 제개척 학교 활성화

#### ① 호남특별연회 미자립교회 대책 (중장기 계획수립)

- 비전교회 지원 및 활성화계획 수립
- 중장기 목회전략 수립

#### ② 호남특별연회 개척 제개척학교 활성화

- 개척 제개척학교 지속적 운영
- 비전교회와 멘토교회 연결 멘토링사역 활성화
- 개척 제개척학교 훈련으로 제개척 진행

### 3. 교회, 단체의 미자립교회 지원 사례

#### 1) 개척선교회(강동지방 대명교회)

1990년 김영호 목사는 대명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더 하신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5,000교회를 개척하여 100만명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뜻을 세우고 오늘날까지 개척선교회를 통하여 개척교회에 개척지원을 하고 있다.

교회 예산의 50%를 개척교회 설립비로 성별하기 위하여 담임목사 생활비 및 목회 활동비 50%이상 삭감, 10년동안 담임목사 승용차 안갖기, 10년간 유급직원의 상여금 제도 없애기, 강단 꽃꽂이 없애시, 각 기관 재정 자립, 모든 봉사자는 무보수 봉사의 원칙을 세우고 교회개척에 최우선의 기금 마련을 시작했다.

대명교회는 1991년도에 국내외 10교회를 개척하였는데, 1년 예산의 절반을 쏟아 부은 결과였다. 5,000교회 운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명교회에서 개척지원한 국내 교역자들을 비롯하여 20여명의 동역자들이 가칭 대명개척선교회 발기위원회를 구성하여 1991년 12월 12일 개척선교회를 창립하였다. 20여 교회로 시작한 개척선교회는 개척은행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교회들이 매월 현금한 선교비를 모아서 개척하는 교회에 선교비를 지원한다. 선교비를 지원받은 교회는 선교비를 지원받는 1년 후부터 만 5년 동안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개척선교회는 부설 SOS은행을 설립하였는데, 1구좌는 1천원으로하여 지금까지 SOS은행은 소액(1백만원)50개월 무이자로 지원한다. 개척선교회는 2019년 12월 현재 1,500여교회를 개척하거나 지원하였다. 개척선교회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늘아래 가장 교과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뜻을 모으면서 5대양 6대주 마을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다.

## 2) Salt & Light Plan – 광림교회

### (1) SALTPLAN

중소도시 교회 자립과 성장을 위한 목회지원

#### ① 지원대상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중소도시 미자립교회 30개 교회

#### ② 지원내용

- 재정지원

2020년, 1년간 매월 선교 후원

- 실천목회세미나 커리큘럼

· 예배/교회학교 · 호렙산 기도회/설교 · 중보기도사역 · 전도/양육

· 트리니티 성경공부(평신도 교육 프로그램) · 목회자의 영성

· 가정사역 및 목회상담 · 심방목회/속회/선교회

- 인적지원

전도단 파송/교육선교 개최

#### ③ 문의

광림교회국내선교회원회/목회행정기획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문의. (02) 2056-5717

### (2) LIGHTPLAN

미자립교회의 비전과 자립을 위한 목회지원 및 기관 지원

#### ① 지원대상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미자립교회 70개 교회와 30개 기관

#### ② 지원내용

- 재정지원

1년간 매월 선교후원

- 목회지원

목회포럼을 개최해 실천목회의 프로세스 공유

- 인적지원

교회학교 여름행사 및 교육선교 지원

③ 문의

광림교회국내선교회원회/목회행정기획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문의. (02) 2056-5717

### 3)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 - 빛가온교회

## 실제 자립화를 이루어내는 목회코칭세미나

서길원목사(빛가온교회)

빛가온(상계)교회는 지난 14년간, '미자립교회를 자립화하여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코자 초교파로 한국의 미자립교회를 자립화하는 선봉에서 사역을 감당해왔다.

매년 2월, 주제를 선정하여 초교파적으로 교계의 모범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1일 '리메이크교회부흥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마다 9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몰려들어(2019년 세미나 참석 누적교회 약 9,000교회) 각 시간마다 강사들의 교회의 교회부흥의 이유와 목회의 노하우를 강의와 치열한 질문을 통해서 나눈다.

마지막 시간에는 참석한 교회 중 자립코칭세미나에 참여하기를 신청한 교회 중에서 현장추첨을 통하여 각 권역별(서울, 경기, 강원 등)로 70개 미자립교회를 선정한다.

선정된 미자립교회들은 '제00기 비전교회'라 칭하고 훈련 일정에 들어간다. 이 때 선정된 비전교회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 달, 첫 번째 목요일 '목회코칭세미나'에 참석해야 함을 기본으로 빛가온교회 목회코칭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3월 첫 번째 '목회코칭세미나'가 열리기 전, 선정된 비전교회들의 실제 교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현재 교회의 출석상황은 어떠한지, 선교적 여건은 어떠한지, 어떠한 전도용품이 필요한지, 부흥을 향한 목회자의 자세 등 각 비전교회 별로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교회별 맞춤코칭 준비를 시작한다.

매 달 한 번씩 시행되는 목회코칭세미나는 [리메이크로 거듭나는 교회] (교회성장연구소 서길원 저)를 주 교재로 하며 이렇게 진행된다.

(1) 목회코칭세미나 코칭 내용

시간	내용
12시~1시	점심식사 - 교회 식당에서 매 달 자원하는 교인들의 헌신으로 여선교회가 음식을 만들어 정성껏 대접
1시~2:30	강의 - 매 달, 주제를 달리하여 8가지 강의함으로 리메이크 도전을 줌. 강의안 : 3월-교회자립을 위한 목회자의 마음가짐 4월-봄철 전도전략 5월-설교에 목숨을 걸라 6월-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라 7월-소그룹 리더를 훈련하라 8월-아웃리치 9월-예배를 다양하게 디자인하라 10월-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라 11월-성경공부를 통한 제자양육비결 12월-페스티벌을 통한 보고의 밤
2:50~4:20	설교클리닉 (매 달, 신청자들이 2명씩 설교를 하고 조별로 클리닉 후, 서길원 목사의 설교 클리닉) * 설교클리닉 시간에 사모들은 바리스타자격획득을 위한 강의 실습, 다양한 상담훈련
4:20~5:00	지난 달, 목회 및 전도 점검 & 교회별 맞춤형 원포인트 목회코칭 * 이 시간에 지난 한 달간의 목회를 보고서로 보고하고 예배, 전도, 심방, 기도, 소그룹, 행사, 대예배출석 등 목회를 구체적으로 점검 후, Q&A 시간을 통하여 목회 원포인트 코칭
5:00~5:30	전도지원금 전달 및 전도용품 분배 및 귀가

(2) 선정된 비전교회의 특전

① 설교훈련 - 설교클리닉

② 매 달, 30만원 상당의 전도용품 과 전도비 지원

\*전도용품 : 기계류 - 팝콘, 솜사탕, 외플, 슬러쉬, 봉어빵, 빙수

기타용품 - 소금, 작곡, 건빵, 부채, 생수, 물티슈 등

선교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외 콩나물 같은 다른 용품도 지원

③ 빛가온교회 각종 목회 자료 공유

④ 목장아웃리치 - 7월~10월 교회별 필요사역 요청에 따라 소그룹을 편성하여 아웃리치 실시.(서길원목사 일일부흥성회, 노방전도, 노인잔치, 이미용봉사, 리

모델링, 성경학교등)

- ⑤ 사모들의 바리스타 자격증 획득 및 각종 상담능력, 기도능력 향상 프로그램 진행
- ⑥ 방송 및 언론에 교회를 소개 -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교회 부흥을 돕는다.

특별히 12월엔 한 해간 훈련을 보고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목회코칭 페스티벌'로 금요일야에배에 빛가온교회 온 교우들과 함께 축제를 벌인다. 이 날은 한 해간 훈련을 통해 자립한 교회의 실제 사례를 간증하는 감동적인 시간이 진행된다.

빛가온교회 목회코칭세미나는 이론을 뛰어넘어 수 년, 수십년간 미자립교회라는 꼬리표를 떼게 하는 실제 자립 모델을 제시하는 목회코칭 프로젝트이다. 훈련에 참여하는 미자립교회 중 20~30%의 자립화를 이루어내는 쾌거를 통해서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자립화운동에 앞장 서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빛가온교회의 사명을 담임목사 뿐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으로 목숨걸고 헌신해준 온 교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 (3) 빛가온교회 비전교회살리기 운동본부의 목표

- ① 목회자 리빌딩 운동 : 목회자가 일어서면 교회가 살아난다(부부가 함께 훈련).
- ② 장년 40명 이상 자립화 운동 : 해마다 훈련교회들의 20%의 자립화가 이루어진다.
- ③ 100만 구령운동 : 100명 이상의 교회를 10000교회를 이루어 100만 구령운동을 이룬다.
- ④ 각 지역별 비전교회들과 자립화한 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부흥을 꾀한다.

#### 4) 기도학교를 통해 얻은 거룩한 열정을 선교의 섬김으로

### 이어간 아웃리치 사역 -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한빛교회)

한빛교회의 아웃리치 선교사역은 2019년 올 해로 5년째 이어져왔다. 한빛교회는 매년 작게는 12곳에서 많게는 20여곳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돕는데, 2~4월까지 50일 기도학교가 진행이 되어지는 기간에 기도하면서, 선정하여 50일 기도학교가 마쳐지는 5월부터 각 교구별로 분주히 준비하여 6~7월 주로 성도들의 휴가와 토요일 휴일을 중심으로 아웃리치 선교사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한빛교회 아웃리치의 전체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면, 먼저 3월 한 달간 본 교회 홈페이지와 감리교회 홈페이지, 각 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연도 아웃리치 사역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서 전국의 감리교회 농어촌 도시 비전교회와 한빛교회와 같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협약교회 중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선교부의 사전 답사 및 심사를 거쳐 아웃리치 사역 교회가 선정이 된다.

선정된 교구는 연령대로 편성되어 있기에 특성에 맞는 사역을 고려하여 교구와 선정교회 매칭이 이루어지면, 각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 담당자가 선정교회 목회자가 연계되어 상의하여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고 일정을 확정하여 두곳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아웃리치 사역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의 사역을 보면 대상 교회의 필요를 파악한 후 다양한 사역이 진행된다. 마을잔치, 마을전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어른신 성경학교, 이 미용 봉사, 의료봉사, 교회 및 사택 수리 보수, 시설물 설치, 릴레이 중보기도, 공연 등 다양한 사역이 이어진다.

특별히 한빛교회의 아웃리치 사역이 다른 교회의 사역과 구별되는 사역은 단연 “기도사역”이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한빛교회 내에서도 아웃리치 사역과 사역교회를 위한 집중적인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아웃리치 사역 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기도계획을 세워, 릴레이 기도, 금식기도 등이 이어지고, 아웃리치 사역 기간 중 자체적인 릴레이기도팀을 만들어 선교 교회에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오는 것이다.

실제로 아웃리치 사역 후 선교 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유형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아웃리치 사역 중 기도사역을 통해 영적으로 큰 힘을 얻고 목회에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빛교회 내에서는 사역을 담당하는 각 교구와 부서별로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자회, 모금 행사 등을 진행하고, 또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 팀별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장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웃리치 선교 사역이 준비가 되면, 한빛교회에서는 주일 저녁 예배시, 아웃리치 사역 발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온 성도들에게 각 교구 및 팀별로 이루어질 사역을 소개한다.

각 선교팀들이 깃발을 들고 입장하여, 성도들에게 교구별 사역교회, 사역 내용 등을 소개하면, 백용현 담임목사는 각 선교팀의 깃발에 십자가를 걸어준다.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웃리치 사역으로 준비가 된 후 온 성도들이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사역을 앞 둔 아웃리치의 팀들을 축복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은 아웃리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 팀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모든 선교팀들을 통해 6~7월 중 아웃리치 사역이 이루어진다. 올 해에도 선교부와 각 교구, 청년부까지 전국

14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아웃리치 선교 사역이 마치지면 다시 한번, 한빛교회의 저녁 예배를 통해 아웃리치 선교사역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

보고 예배 때에는 지난 아웃리치 선교사역의 모든 과정과 각 교구별 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온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간증자가 세워져 받은 은혜를 간증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모든 아웃리치 사역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빛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함께 섬기되 특별히 농 어촌, 외진 곳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세워지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아웃리치의 본래의 의미는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손길이 닿게 한다는 의미인데, 사도행전의 부흥을 꿈꾸는 한빛교회는 기도학교 운동을 통해 이 땅에 영적 생태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아웃리치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IV. 나가는 말

### 미자립교회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 1) 한 영혼 사랑하고 한길 가는 목회 - 아낌없이 퍼 주는 나무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자전거 타고라도 갈 수 있지만, 불러주는 데가 없으면 벤치가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재정적으로는 미자립이 아니라, 일평생 마이너스 목회한 어느 목사가 귀한 일에 쓰라고 강사료를 반납하면서 한 이야기이다. 물론 그는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다. 직장인 아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물려받은 재산 털어 집을 장만하여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의 공동생활주택으로 사용하며 노인들을 봉양하였다. 선교사 시절 알게 된 외국의 어린 학생들을 데려와서 훌륭하게 키워서 그들이 지금은 후원자가 되었다. 지금은 기관파송도 못 받는 난민후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저 닥치는 대로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을 돕다 보니 여러 곳에서 귀한 사역을 펼쳐왔다. 말 그대로 그에게는 벤치는커녕 경차도 하나 없다. 그저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 이용하며 다니고 있다. 제대로 된 목회 한번 못 해 봤다지만 분명한 것은 한 영혼 사랑하고 한길 가는 목회였다. 아낌없이 퍼 주는 나무처럼.

미자립이라는 굴레만큼이나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 맡겨진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다면 곡식 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

- 잠27장 23절 -

## 2)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교회

눈을 가리고 걸으면 누구도 한 방향으로 똑바로 걷지 못한다. 20미터 정도 걸으면 목표방향과 4미터 정도의 차이가 생기며 100미터 정도를 가게 되면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독일어로 링반데룽(Ringwanderung; 윤행방향)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규모가 크나 작으나 분명한 비전이 있어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이다. 성숙을 향해 가는 길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미자립의 길이 아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다. 이 파송 공동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실현해 가는 것을 가장 근원적인 사명으로 삼는 선교적 공동체”<sup>1)</sup>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자립을 넘어선 성숙한 교회라고 본다.

## 3)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단

미국 군인들이 생각하는 위험한 임무 1위는 Para Jumper라고도 불리는 파라레스큐로서 적진 한가운데라도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 부상을 당하거나 고립된 병사들을 구출하는 미공군 특수부대이다. 이들은 홀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더욱이 특별한 훈련 없이 별로 지원을 받지도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중형 교회가 무너져 가는 현실에 이들의 생존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혈관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혈액과 조직 세포 간의 물질 이동은 대부분 모세혈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모세혈관이 막혀 통하지 않게 되면 병이 든

---

1) Darrel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8). 4.

다고 한다. 대부분의 큰 집회들은 큰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작은 모세혈관에서부터 문제가 쌓이며, 모세혈관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생기고 동맥과 정맥에 문제가 진행되었을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되고 만다고 한다. 47%를 차지하는 미자립교회는 교단의 모세혈관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의 쇠퇴는 이들로 부터 수평이동을 통해 성장을 하던 대형 교회나 교단의 쇠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방적으로나 연회 혹은 교단적으로 이들에 대한 보다 더 큰 관심과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교단적으로는 신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제적인 목회 훈련과 목회리더십 등 목회자 자기 개발의 동기부여와 교육이 필요하다.

2) 현행 수련목의 기간을 연장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여 부교역자를 키우는 방안과 큰 교회 수련목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임상목회 교육식의 교육 및 지역의 미자립교회로 연 1교회로 순환하여 2교회 정도 파송하여 미자립교회의 인력지원 및 현장 경험 쌓은 후 개척후보지나 선교사 등으로 파송하며, 목회자 안식월 실시 및 연장교육과 DTS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3) 초기 목회자 및 미자립교회 담임자 교육 강화다. 개척성장학교 같은 기관을 통하여 실제적인 훈련을 받은 후 목회에 임하도록 연회 및 지방 미자립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4) 신도시 등 거점 교회를 세워 합당한 목회자 파송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때에는 여러 가지로 검증된 목회자를 공개적으로 추천받아 선발하며 파송받은 목회자는 10년간은 이동 없이 목회할 것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감리교세가 약한 삼남연회 및 호남선교연회 지역에 집중적인 개척이 요구된다. 생활비 및 임대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감리교회의 역량을 쏟아 감리교회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감리교회 교세 확장에 효과적이다.

6)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기숙사를 활용하여 농어촌 목회자들이 목회

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집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미자립교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지원들이 교단 차원에서 체계화되어 연합하여 추진할 때 보다 더 큰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7) 미자립교회 현장의 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연회가 주도하는 비전교회 협약과 인적 물적 지원 사업들의 지속과 함께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이다. 단순히 연회에서 감리사에 위임하여 일괄 선정하는 것보다는 지방 소속 비전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와 제출한 통계표를 바탕으로 지방 임원들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더욱 공정하다고 본다.

②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운동으로서, 어떤 지원보다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목회 방향과 구체적 사업들을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 평신도들을 일시적/지속적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는 그들을 훈련-파송하며, 지방은 이를 지원하고 격려한다. 같은 지방 또는 인접한 지방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도와 지역 선교에 참여할 평신도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모범 사례들을 만들어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

③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생활비 바우처(voucher) 제도이다. 금융권과 협약을 통해 감리교 목회자 가정이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카드 바우처를 만들어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은 당장 지속 가능한 자원 마련의 어려움과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많은 적든 감리회에 소속감도 주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④ 개척-미자립 목회자들의 자발적 책임목회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미자립교회에 부임한 새 담임자의 경우 연회와 지방의 지원과 훈련을 약속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최소 5년, 10년 이상의-자발적이지만 강제력을 갖는-책임목회서약과

그에 따른 인준이 요구된다. 감리회 전체로 볼 때, 당장에는 정체와 혼란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목회자 수급조절과 지역선교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지역선교를 위해 헌신할 목회자를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⑤ 교단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간혹 미자립교회를 위해 단체나 개인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재정 수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자립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개 교회들이 조금씩 힘을 모아 줄 것을, 그래서 미자립교회를 위한 일정액의 부담금을 거두어 사용하기가 요구된다.



## 교회개혁과 성장을 돕는 개혁 레시피

session 1

발행인 오일영 목사(선교국 총무)

편집인 고영도 목사(국내선교부장)

집필 김영호, 황병배, 계인, 최재훈, 박영진, 신현희

발행일 2019년 12월 27일

발행처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www.kmcmission.or.kr](http://www.kmcmission.or.kr)

---

비매품